Life p/16

유통업계 연말 마케팅 시동

metro
메트로 2014년 11월 20일 목요일 제3083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3

슈틸리케號 베스트 11은?

광화문광장 '사랑의 온도탑' 오늘 제막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랑의 온도탑' 설치작업이 한창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일 제막행사를 열고 연말연시 이웃돕기 범국민 모금운동 '희망 2015 나눔캠페인'을 시작한다. /연합뉴스

한국 게임의 놀라운 저력 펼친다

K팝 11배, 한류영화 131배 효과의 수출효자 증명
역대 최대 35개국 617사 참여 부산 벡스코 한마당

지스타2014 오늘 개막

한국 게임의 "놀라운 저력"이 부산 벡스코를 뜨겁게 달군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각종 규제 때문에 국내 최대 게임 축제인 지스타(G-STAR) 2014가 흥행에 참패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K-팝의 11배, 한류영화의 무려 131배에 달하는 수출 효자인 게임의 힘을 톡톡히 증명하겠다는 각오다.

지스타조직위원회는 20~23일 부산 벡스코에서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Game is not over)'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지스타 2014'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지스타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개국 617개사(2567부스)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미공개 신작 줄줄이 공개

게이머들이 가장 기대하는 신작 출시도 줄을 잇는다.

넥슨은 "돈손의 역습"이란 슬로건 아래 역대 최대 규모(180부스)의 전시관을 꾸미고 온라인게임 9종과 모바일게임 6종 등 모두 15종의 신작을 공개한다. 온라인게임으로는 '메이플스토리2', '서든어택2', '공각기동대', '마비노기 영웅전' 하이퍼 유니버스', '클로저스', '수신학원 아르피엘', '아이마' 등이, 모바일게임으로는 '마비노기 듀얼', '야생의 땅: 듀랑고', '프리타', '광개토태왕', '영웅의 군단: 레이드' 등을 선보인다.

3년 만에 지스타에 다시 참여한 엔씨소프트도 '우주정복' 현재 그리고 미래로의 초대'란 구호 아래 200부스 규모의 전시관을 꾸몄다. 특히 3년 전 소개돼 화제를 모은 대작 '리니지이터널'의 체험관을 처음 선보이며 대규모 시연존도 마련했다. 자기 신작 '프로젝트 혼' 에도 게이머들의 눈길이 모이고 있다.

지스타에 처음 출전하는 스마일게이트는 '아제라', '로스트아크', '스키이시가', '프로젝트 퍼히' 를 비롯해 미공개 프로젝트를 대거 선보인다.

엑스엘게임즈는 인기 PC 패키지 게임 '시드 마이어의 문명'을 차용한 온라인게임 '문명온라인'으로 흥행을 노린다.

◆독일 정부, 한국 게임사 유치 설명회도

'지스타 게임 투자 마켓', 게임가업 채용 박람회', '부산 가족 e스포츠 쩜', '한 힘 게임애니송페스티벌' 과 같은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린다. 특히 리그제를 도입한 국내 리그오브레전드(LoL) e스포츠가 'LoL 챔피언스 코리아 2015'라는 이름으로 시드 선발전을 열어 e스포츠 팬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독일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연방주는 이번 지스타 현장에서 한국 게임회사 유치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지스타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었던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 연방주에 이어 두 번째다.

국내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독일은 국가적으로 게임을 문화 산업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게임을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하는 등 각종 규제가 쏟아지고 있다"며 "올해 지스타 슬로건인 '게임은 끝나지 않는다'에 담긴 국내 게임업체들의 절실함을 정치권에서 제대로 봐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용마터널·구리암사대교 개통

21일 "한강 남북간 이동 40분→10분대로"

서울 동부권과 경기 구리시 아천동을 연결하는 용마터널과 구리암사대교가 오는 21일 개통된다.

용마터널과 구리암사대교는 천호대교와 강동대교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하고 서울 강동지역과 구리시의 원활한 차량 이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아차산과 한강을 통과하는 직결 도로망 구축으로 한강 남북 간 이동 시간이 30~40분에서 10분대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랑구 면목동에서 경기도 구리시 아천IC를 연결하는 용마터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됐다. 2009년 착공, 총 1172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갔다. 폭은 4~6차로, 총 연장은 3556m다. 터널 2565m, 지하차도 383m, 교량 3곳(210m), 요금소 1곳으로 건설됐다.

요금은 소형(승용차) 1500원, 중형 2500원, 대형 3200원으로 결정됐다.

터널 안에는 화재 등 비상 대피를 위한 피난 연결통로(13개)가 만들어졌으며 아천동 방면 터널 출구에는 도로 결빙 방지 장치가 설치됐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터널 내부에 오염물질 저감 시설이 들어섰다.

용마터널을 지나 만날 수 있는 한강의 30번째 다리 구리암사대교는 2006년에 착공해 총 411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총 연장은 1133m, 폭은 4~6차로이며 도로는 주 교량과 접속 교량, 상하행선에 각 1곳씩 2곳의 입체교차로(암사IC, 아천IC)로 구성됐다.

/조현정기자 [illegible]

지스타 특집 (12~15면) 부산 벡스코 현장에서 배포됩니다

호기심 때문에 '죽은' 밀러

기자 수첩
조선미 (글로벌부 기자)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 지나친 호기심은 위험하다는 뜻의 서양 속담이다.

최근 이 속담의 새로운 주인공이 탄생했다. 얼마 전 북한에서 풀려난 미국인 매튜 밀러다. 밀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수감을 자처했다. 북한이 나를 체포하지 않을까봐 두려웠다"고 밝혔다. 엄마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다.

그는 지난 4월 관광객으로 북한에 갔다. 북한 정부에 체포되고 싶어 일부러 여권도 찢었다. 자신이 군사 기밀을 가지고 있는 척 허풍도 떨었다. 북한 당국은 밀러의 허풍에 관심이 없었지만 그의 지속적인 '간청'에 결국 수감을 허락했다. 밀러가 노동교화형 6년형을 선고 받아 수감 시설로 옮겨진 배경이다.

매년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북한을 찾는다. 굶주리는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구호 단체, 핵 프로그램을 사찰하기 위한 국제 기구 등이 대표적이다. 인도주의적 지원과 한반도의 안보 등 모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개인의 무모한 욕심을 채우기 위한 행동은 찾아보기 어렵다. 밀러와 함께 북한에 억류됐던 케네스 배도 그와 다른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했지 않나.

배씨는 선교 목적으로 북한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를 포함해 종교적인 이유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종종 비난을 받는다. 북한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호기심으로 억류된 뒤 풀려난 것을 모험담 늘어놓듯 떠드는 밀러. 그의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미국 정부는 물론 전 세계의 소중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이기주의자가 다시는 등장하지 않길 바란다.

中企 125곳 구조조정 착수

5년만에 최대 규모… 71개사는 퇴출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경영실적이 나빠져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중소기업이 125개사로 늘어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 이후 5년 만에 최대 규모다.

금융감독원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 1609개사를 대상으로 정기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125곳으로 전년 대비 11.6%(13개사)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중소기업은 최근 3년간 영업현금흐름이 적자를 기록하고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 자산건전성 '요주의이하' 등급을 받은 기업 가운데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세부평가 결과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업체다.

C등급이 54개사로 전년과 동일했으나 사실상 퇴출대상인 D등급은 71개사로 1년전보다 13곳(22.4%)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전자부품 등 제조업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제조업종은 76개로 전년(53개) 대비 43.4% 증가한 반면에 비제조업은 49개로 전년(59개)보다 16.9% 감소했다.

제조업 중에는 전자부품(+8개), 플라스틱제품(+6개), 기타 운송장비(+5개) 등의 업종이 증가했고, 비제조업은 경기민감업종인 부동산업(+2개), 도소매업(+2개)이 소폭 늘었으나 오락과 레저서비스업(-18개)은 급감했다.

이들 구조조정 선정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신용공여액은 9월 말 기준으로 총 1조4069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여파로 은행권이 적립해야 할 충당금은 4854억원으로 추산됐다.

충당금 증가로 은행권의 BIS비율은 6월 말 기준 평균 14.16%로 0.02%포인트 하락에 그쳐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금감원은 C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자산부채 실사와 경영정상화계획 수립 등 워크아웃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D등급 기업의 경우 채권금융회사의 지원 없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illegible] @metroseoul.co.kr

과수재배 병가 촬영해보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후 경기도 안성 팜랜드에서 열린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한 대토론회' 전 미래농업전시회를 둘러보며 과수 재배용기와 육종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태블릿PC로 사과나무를 촬영해보고 있다. /뉴시스

예산 기한 D-10 "지켜야" vs "연장 가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심사 시한이 1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에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 시행 원년을 맞아 헌법에 따른 처리 기한 준수의 전범을 확립하겠다는 여당과 정기국회 기간 예산안을 연결고리로 최대한 정치적 성과물을 얻어내야 하는 야당이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팽팽히 맞선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19일 "심사 기한의 예외 없는 준수"를 공식 방침으로 천명하며 야당을 압박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날치기'라는 용어까지 동원해 여당의 시한 준수 방침을 견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예산안 심사 기한인 오는 30일까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처리 시한인 12월 2일 여당의 자체 수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 당은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예산 처리 시한을 반드시 지켜 새로운 헌정사를 써 나갈 각오"라며 "여야가 합의해 심사 기한을 늘릴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날치기 단독처리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새정치연합은 내부적으로 12월 9일까지 예결위 심의 시한을 연장하도록 여당에 요구한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예산안 수정동의안의 단독 처리 방침을 세운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며 "날치기도, 형식적인 (국회선진화법)을 이유로 법안이나 예산안을 처리해서는 국민의 저항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illegible]

유엔, 북한 인권상황 ICC회부 권고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이 채택됐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중국과 쿠바, 시리아, 이란 등은 반대표를 던졌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북한의 인권 관련 결의안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강도 높은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결의안은 북한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고문,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았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에 넘기고 안보리는 COI의 권고를 받아들여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도록 한 것이다.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 'ICC 회부 권고'를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이번 결의안에 크게 반발했다.

최명남 북한 외무성 부국장은 표결에 앞서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으로 가득 찼다.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 정책이 뒤에 놓여 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반대표를 던질 것을 호소했다. /조선미기자 seonmi@

유엔 총회의 인권문제 담당 제3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사진은 표결에 앞서 북한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이 반대표를 던질 것을 호소하는 모습이 회의장 전면 스크린에 비치는 모습. /AP 연합뉴스

뉴스&뉴스

'이희호 여사 방북' 실무 협의 21일 개성서

● 정부는 19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협의를 위해 이 여사 측이 신청한 북측 관계자와의 실무 접촉을 위한 개성 방문을 승인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통일부는 이희호 여사 방북 협의와 관련해 이희호 여사 측 관계자의 21일 개성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제민주연합 당수회의 개막…40여국 참가

● 전세계 보수민주정당의 연합체인 국제민주연합(IDU) 당수회의가 19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개막했다.

IDU는 오는 21일까지 '자유와 민주주의의 도약-새로운 도전에 맞서'를 주제로 보수 정치의 미래와 세계 경제 발전과 평화, 정당 간 유대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40여 개국 110여 명의 전·현직 수반과 각료들이 참가한다.

전 이사장은 법인자금 횡령하고… 전 실·팀장은 납품업체서 뇌물받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비리 온상'

경륜·경정·스포츠토토 사업 등을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전·현직 임직원들이 허위 회계처리와 납품 단가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빼내 쓰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정모(69)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김모(53) 전 홍보비서실장과 김모(47) 전 삼생경영팀장은 업무상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 7일부터 올해 4월 22일까지 수십만원 상당의 고가품을 지인과 체육계 관계자 수백명에게 선물로 보내 법인자금 2억 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홍보비서실장은 수십만원짜리 고가품을 3만원 이하 홍보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회계 처리해 정 전 이사장의 횡령을 돕고, 부하직원 2명과 거래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인사·납품청탁 명목으로 13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삼생경영팀장은 거래업체를 시켜 납품 단가나 수량을 부풀리거나 허위견적서를 제출하게 한 뒤 계약이 이뤄지면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3년간 법인자금 1억 16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부하직원들과 유흥업소에서 회식을 하고 팀원들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수입 패딩점퍼를 나눠주기도 했으며, 자기 신용카드 대금을 갚는데 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팀장은 납품청탁 명목으로 5개 업체로부터 3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내부 감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감시 등에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상기간 적발되지 않고 비리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이사장은 법인자금을 이용해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관행적이었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정상적 관행으로 공적자금을 횡령하는 공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첩보수집과 검거활동을 확대해 사회 곳곳에 만연한 적폐 청산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주기자 cyclone@metroseoul.co.kr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출범
재난안전 사령탑 역할을 담당할 국민안전처와 공직사회 개혁을 이끌 인사혁신처가 19일 출범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처 관계자들이 현판을 달고 있는 모습. /뉴시스

국산 파워팩 탑재 K-2 전차 100대 실전 배치된다

국산 파워팩(엔진+변속기)이 장착된 K-2 전차 100여대가 2017년까지 실전배치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19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8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K-2 전차 2차 양산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독일제 파워팩이 탑재된 K-2 1차 양산분 100여대는 지난 7월 1일 육군 20사단에 13대가 실전 배치된 것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력화가 완료된다.

K-2 전차 국산 파워팩은 합동참모본부가 가속성능 기준을 낮춰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초 군 당국은 K-2 전차 파워팩의 국내 개발을 추진하면서 시속 32㎞에 도달하는 기준으로 8초를 제시했다. 하지만 국산 파워팩을 장착한 K-2 전차는 실제 기동시험에서 8.7초가 걸려 군의 요구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합참은 지난달 31일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가속성능 기준을 8초에서 9초로 완화했다. /유주영기자

서울 미세먼지·오존 증가

서울시내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가 최근 2년 새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1~9월) 서울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1㎥당 48㎍로 집계됐다.

대기환경기준(연 50㎍/㎥ 이하)을 넘지는 않았지만 2012년(41㎍) 지난해(45㎍)보다 높아진 수치다.

올해 자치구별로는 관악구의 미세먼지 농도가 53㎍/㎥로 가장 높았고, 광진구(52㎍/㎥), 구로·마포구(50㎍/㎥)가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동작구로 43㎍/㎥이었다.

/유주영기자 [illegible]

조겨울 문턱 꽃망울 터뜨린 개나리 19일 오전 청주시 상당구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개나리가 꽃망울을 터트렸다. /연합뉴스

도심 관광버스 주차장 확대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관광버스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로구·중구·용산구 일대 7개소를 선정해 관광버스 44대 분량의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 도심에는 하루최대 788대의 관광버스가 몰렸다.

그러나 현재 관광버스 주차장은 시내 32개소에 57대만을 수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종로구 새문안로 2길에 8대 주차를 새로 허용하고 용산구 한남공관 교차로와 중구 숭례문 초입에는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을 설치한다.

중구 세종대로와 종로구 창경궁로는 모든 차량에 대해 주차허용하던 것을 관광버스 전용으로 바꾸고 종로구 창의문길 및 사직로 등 2개소는 주차허용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유주영기자

소름 돋는 허경영 공약, 시대를 앞서간 사람?

여의도 페트롤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어라는 야당의 포럼이 화제다.

허경영의 14년 공약과 닮았기 때문이다. 과거 그의 공약에 정확한 문구는 '결혼시 남녀 각 5000만원씩 1억원 지급'이다. 여기에 '출산시 3000만원 지급'으로 인구 감소 해결 도 관련 공약이라 할만하다. 새정치연합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포럼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허경영이 대선에 처음 나왔던 20여년 전, 그의 공약들을 보고 헛웃음을 쳤지만 이번에 다시 찾아보고선 놀랐다. 상당수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현되거나 일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공약들은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건국수당으로 매월 70만원 지급, 출산시 3000만원 지급, 공공요금 각 3만원 무상 공급,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융자,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지자체의원 보수폐지·단체장 선거폐지, 화폐 변경으로 960조 지하자금 회수, 농지와 농가거래 활성화로 주말농장 활성화, 의료보험 100% 적용, 미생물 농약으로 농산물 경쟁력 강화, 이혼기록 호적에서 폐지, 전군 모병제와 예비군 훈련 폐지, 중소기업 취업자 월100만원 지원 청년실업 해소, 창업자금 지원 등이다.

1990년대에 나왔던 허경영 공약들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실현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안철수 후보가 대선 공약에 포함했던 큰 이슈였다. 허경영이 내걸면 허풍이고, 안철수가 내걸면 진지한 공약이란 법은 없다.

출산 장려금도 실제로 강남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했던 적이 있다. 개인파산 회생제도는 지금은 당연한 듯 여겨지지만 불과 10년 전에 만들어졌고 허경영은 그 것을 90년대에 내놓았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허경영 공약은 이혼 기록 폐지다. 정부는 지난 10월 가족관계 증명서에 이혼 기록 등이 나오지 않도록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쯤되면 허경영 공약이 헛소리라고 치부만 할게 아니란 결론이 나온다. 심지어 예산 마련안도 박근혜정부의 지하경제 활성화와 비슷한 취지다.

어쩌다 이런 결론이 났을까. 결국 핵심은 '복지'다. 허경영이 과거 내걸었던 공약들은 그 당시엔 '공'만 갖고 실현 불가능해 보여 허풍·거짓말로만 여겨졌다. 그러다 2000년 이후 복지가 화두로 올라섰다. 정치권은 복지 공약을 강화했고 정부도 복지국가를 추구하며 정책을 연구한 결과 허경영 공약과 닮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쯤되면 각 정당은 허경영 공약 중 놓친 것은 없는지 다시 살펴봐야 할 정도다. 허경영의 제2 전성기가 오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정김화

'최대' 국제산업보건대회 안보공단, 내년 서울서

내년 5월 31일부터 6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이 주최하는 국제산업보건대회가 열린다.

최근 공단에 따르면 내년 서울대회에는 약 120개국에서 3400여명이 참가,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고령근로자 문제, 독성화학물질 문제, 나노기술의 엇점과 폐해 등 현대 산업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이사장은 "내년 서울대회는 전세계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제기구, 정부, 학계, 산업현장 리더들이 모이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공단은 정부 3.0의 취지에 맞춰 관련 단체 및 사업장과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주영기자

2014년 케이프타운에서 국제산업보건대회가 열리고 있다.

日도레이 탄소섬유 최강자

미국 보잉사에 10년간 1조엔 규모 독점 공급 계약

일본 첨단 소재 업체 도레이가 미국 항공사 보잉에 1조엔(약 9조 4000억원) 규모의 탄소섬유를 공급하게 됐다.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레이는 보잉사와 연내 계약을 체결, 차세대 여객기 '777X'에 사용될 탄소섬유를 앞으로 10년간 독점 공급한다.

이번 계약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던 7000억엔 규모의 기존 계약을 갱신한 것이다. 항공기 분야 수주 금액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보잉은 중대형기 동체와 날개 부분을 탄소섬유로 만들어 연비를 20% 낮출 계획이다. 보잉이 요구하는 수준의 탄소섬유 복합 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도레이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레이는 일본 에히메현과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탄소섬유 복합재를 생산하고 있다. 도레이는 이번 계약으로 늘어나는 물량을 감당하기 위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미국 내 두번째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우선 3년간 약 600억엔을 투자해 연간 3000~4000t 규모의 생산 라인을 만든다. 이후 2020년까지 라인을 증설, 생산 규모를 연간 약 8000t 규모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도레이는 보잉과 유럽 최대항공기제작사 에어버스를 포함해 세계 4개국에 탄소섬유를 공급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탄소섬유 시장의 32%를 도레이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계약으로 도레이의 시장 점유율은 조만간 50%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꿈의 소재'로 불리는 탄소섬유는 무게는 강철의 4분의 1이지만 강도는 10배 이상이다. 항공기와 셰일가스 운반용기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탄소섬유의 수요가 연평균 15%씩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폭설에는 눈썰매! 18일(현지시간) 30cm이상의 폭설이 내린 미국 미시간주 칼라마주 도로에서 한 남성이 애견 두 마리가 끄는 눈썰매를 타고 있다. /AP 연합뉴스

신비로운 13m 열반 불상

metro HongKong

돈황 석굴 전시회 화제

13m의 열반불상 등 신비로운 돈황(敦煌) 석굴 유물이 홍콩을 찾는다.

홍콩 문화박물관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3월까지 '돈황-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주제로 역대 최대 규모의 돈황문화전시회를 연다.

전시품은 120종에 달하며 주요 전시품으로는 13m 크기의 열반불상과 3가지 대표적인 복제동굴, 시리아문 성경 등이 포함돼 있다.

일부 진품 이외에 '문화재급' 복제물도 전시된다. 가장 오래된 복제 벽화는 70년 전에 제작된 것이고, 가장 역사가 짧은 복제물도 30년이나 됐다. 길이 13m의 모조 열반불상은 네 부분으로 분리된 후 1주일간 돈황에서 육로를 거쳐 홍콩으로 운반됐다.

웡이 홍콩문화박물관 관장은 "열반상은 평범한 사람들이 임종할 때 보이는 고통과 슬픔이 아닌 아주 편안하고 침착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 두 다리를 뻗고 사자처럼 누운 자세는 일반인의 죽음과 열반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돈황 막고굴 중 가장 유명한 열반굴 중 하나인 158굴은 토번(티베트족)이 통치하던 시기에 만든 것으로 막고굴 최대 열반상으로 유명하다. 이 석굴의 대표적인 보살 벽화와 나한도(羅漢圖) 등도 전시실에 걸린다. 석가모니의 전기를 담은 290굴 벽화 87개 중 50개의 모사본도 전시에서 만날 수 있다.

또 전시 기간 돈황문화강좌와 무용공연 등 관련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웡이 관장은 "세 달 반의 전시기간 동안 관람객이 10만 명 이상 다녀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리=조선미기자

'빅뱅이론' 전시회 눈길

metro Russia

최근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솔랸카 갤러리에서 미국 유명 코믹 시트콤 빅뱅이론을 테마로 '빅뱅이론 전시회'가 열렸다.

전시회를 주최한 러시아 인터내셔널 미디어네트워크스의 안드레이 그루코프스키는 "빅뱅이론을 사랑하는 일러스트 화가들이 그린 다양한 빅뱅이론 관련 작품을 볼 수 있다"며 "요즘 예술가들은 유명한 문화 콘텐츠를 테마로 한 작품을 많이 그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작가들이 그린 빅뱅이론 그림과 사진, 주인공의 캐리커처 작품도 볼 수 있다.

그루코프스키는 "국가별로 섹션을 나눠 작품을 전시했다"며 "러시아 섹션에서는 빅뱅이론 팬이 그린 작품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 팬 엘레나 고코노바의 괴짜 과학도와 금발 미녀 그림이 흥미롭다"고 덧붙였다.

/다리야 부이노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20㎝ 차이로 빗겨가

미국 80대 노부부 집 화물기 추락 구사일생

비행기가 가정집에 추락해 동체가 지붕을 뚫었지만 집안에 있던 노부부는 멀쩡했다.

18일(현지시간) 미 NBC 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카고 주택가에 화물기가 추락, 조종사는 숨졌지만 침실에서 잠을 자던 80대 부부는 손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

사고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화물기가 노부부의 침실은 20㎝ 차이로 빗겨갔다"며 "현관을 들이받고 거실을 지나 지하실로 곤두박질을 쳤다"고 말했다. 이어 "가세의 3분의 1정도는 지붕에 남아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사고기 연료 누출로 인한 폭발과 주택 붕괴 위험에 대비해 인근 주민을 대피시켰다고 밝혔다.

화물기는 시카고 미드웨이공항을 떠나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있는 오하이오주립대학으로 가던 중이었다. 사고 발생 지점은 공항 활주로에서 불과 400m 거리다.

미 연방항공국 대변인은 "조종사는 이륙 직후 엔진에 문제가 있어 회항을 시도하던 중이었다"며 "현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미기자

"통장 쪼개기로 돈 새는 구멍 막으세요"

정기예금에 만족 못하면 중위험 중수익 상품 ELS가 적합

금융가 사람들

■ 이관석 신한은행 팀장

이젠 아껴야 잘산다는 것도 옛말이 됐다. 요즘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는 '어떻게' 아끼는 게 더 중요해졌다. 금리가 낮아진 만큼 천편일률적인 예·적금 상품에서 벗어나 투자 상품을 통해 수익을 찾아야 할 때다.

이관석(사진)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부 맞춤솔루션 팀장은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안전한 정기예금만 고집해왔다면 이제는 예금 일변도에서 자기에 맞는 투자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며 "포트폴리오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투자상품 역시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접근하라"면서 "본인이 투자 위험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지 위험도를 철저하게 따져 자신에게 맞는 리스크 수준의 상품을 찾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포트폴리오를 짠 뒤에는 상품 선택으로 넘어가 보자. 그는 저금리 기조 속 새로운 대안으로 '중위험 중수익'의 재테크 전략을 추천했다.

그는 "정기예금 금리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중위험 중수익 상품을 노리는 것이 좋다"며 "중위험 중수익의 상품은 쉽게 말해 '안전한 예금과 위험한 주식'의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대표적인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주가연계증권(ELS)을 꼽을 수 있다"면서 "ELS는 은행 정기예금 금리에 만족하지 않으면서 펀드투자를 꺼리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ELS는 주식시장이 하락하거나 조정을 보일 때도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설계된 게 장점이다. 수익률은 연 5~10% 수준이며 상환조건 충족시 보통 6개월마다 상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금이 오래 묶일 가능성이 적다. 이런 장점 덕분에 지난 5월에는 8조2924억원 발행액을 기록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이관석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부 팀장은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정기예금만 고집했다면 이제는 자기에 맞는 투자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진영기자 son@

이 팀장은 이와 함께 무분별한 소비와 지출을 막기 위해선 '통장 쪼개기'가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통장을 크게 ▲월급통장 ▲ 사용통장 ▲지출통장(식품·생활비) ▲예비통장(비상금) 등 목적별로 4개로 나눠 관리하면 재무목표 달성이 쉬워진다는 것이다.

그는 "예비통장의 경우,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한 달 생활비의 3~6개월치 정도 금액을 미리 넣어둬야 한다"며 "지출통장도 체크카드를 연결해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 신용카드를 만들어 쓰게 된다면 지출이 통제되지 않아 원하는 시기에 '자금 모으기'가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팀장은 내 집 장만 시기에 대해선 "지금이 내 집 마련의 적기"라고 조언했다.

그는 "그동안 국내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국면에 있었는데, 향후 2년이나 3년 정도는 좋아질 것"이라면서 "과거처럼 집값이 크게 상승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빠졌던 것을 회복하고 나아질 수 있는 시기이며 실수요자에겐 지금이 내 집 마련의 적기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2,3년 좋아진다는 의미이지, 억지로 끌어올린 집값이 오래 가진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부동산은 평균적으로 수익을 쉽게 내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잘 선택해야 한다고 이 팀장은 강조했다.

/김현정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하나·외환, 연 3%대 '보금자리론' 출시

하나금융그룹은 19일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 협약상품인 'u플러스 보금자리론'을 공동 판매한다고 밝혔다.

'u플러스 보금자리론'은 은행 창구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지만 금리는 온라인 전용인 'u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적용해 이자부담을 낮춘 상품이다.

이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한 구조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수요자가 주택을 담보로 최고 5억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고객이 선택할 수 있으며 금리는 연 3.2%~3.45%로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예컨대 고객이 은행창구에서 'u플러스 보금자리론' 10년 고정금리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기존 't보금자리론'보다 0.4%p 낮은 연 3.2%로 취급 가능해 온오프라인 채널 모두에서 동일한 금리로 주택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행 관계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에 의해 'u플러스 보금자리론'을 선보임으로써 보금자리론의 오프라인 채널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u플러스 보금자리론'은 협약에 의해 20일부터 내년 9월까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창구에서만 단독판매 예정이며 기존 't보금자리론'은 판매 종료된다.

/박선옥기자 [illegible]@

은행연합회장에 하영구씨 내정

하영구(사진) 전 한국씨티은행장이 차기 은행연합회장에 내정됐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오는 24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차기 은행연합회 회장으로 하 전 행장을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장들은 차기 은행연합회장으로 하 전 행장을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하 전 행장이 은행연합회장에 낙점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영구 전 행장이 차기 은행연합회장으로 낙점된 데에는 관피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민간 출신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너울이 금융당국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하 전 행장이 최종 선임되면 은행연합회 설립 이후 역대 세 번째 민간 출신 회장이 된다. 그동안 은행연합회장은 박병원 현 회장을 포함해 역대 10명의 회장 중 8명이 관료 출신이었다.

한편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의 임기는 오는 30일 만료된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24일 이사회를 열어 회장 후보를 추천한 뒤 곧이어 총회를 거쳐 차기 은행연합회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김민지기자

교보, 라이프플래닛 380억 증자 출자

교보생명은 자회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에 2차년도 유상증자분 380억원을 전액 출자키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증자는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교보라이프플래닛 설립 허가 신청 시 조건인 5년간 자본금 총 1060억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1차연도에 320억원을 공동 출자했던 일본 온라인 생보사 라이프넷은 이번 증자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유상증자 이후 지분은 교보생명 88.34%, 라이프넷 11.66%로 변경된다.

이학상 교보라이프플래닛 대표는 "출범 1년 동안에는 IT 기반의 금융회사 특성상 초기 인프라 구축과 브랜드 마케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왔다"며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출범 2차년도에는 보다 혁신적인 상품 서비스 개발과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차별적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illegible]@

market index <19일>

코스피	1965.87 (-0.14)	코스닥	540.84 (+4.84)
금리	2.18 (변동 없음)	환율	1106.30 (+7.30)

뉴스&뉴스

딸기 맛보세요 19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겨울 들어 첫선을 보이는 겨울 딸기를 소개하고 있다. 이마트는 이 딸기를 9800원(500g/팩)에 판매한다. /이마트 제공

통신비 제로 도전 이벤트

● 휴대전화 오픈마켓 착한텔레콤이 헬로모바일과 업무 제휴를 통해 '통신비 제로(0)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통신비 제로 이벤트'는 착한텔레콤과 제휴를 맺고 있는 유진투자증권의 통신비 지원 이벤트와 헬로모바일의 '반값 유심(USIM)' 요금제를 접목시킨 것이다.

유진투자증권은 헬로모바일 반값 유심 요금제 이용 고객 중 주식 거래액이 1억원 이상인 신규 고객에게 1년 간 매월 2만1000원씩, 총 25만2000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헬로모바일의 대표 상품인 조건없는 유심 LTE21(기본료 2만1000원)을 사용하면 매월 통신비가 0원이 되는 셈이다.

반값 유심 요금제와 유진투자증권 이벤트는 착한텔레콤의 홈페이지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이재영기자 ljy0403@

연금복권520 제177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 20년	4조	463269
		5조	623553
2등	1억원	1등의 전후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575424
4등	100만원	각조	76267
5등	2만원	각조	557
6등	2000원	각조	05, 19
7등	1000원	각조	7, 8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사직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회편집인 김종학
편집제작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4·3
독자센터 (02)721-9891
2002년 5월 31일 창간(일간신문) 서울특별시 가00018

25조원대 초대형 플랜트사 무산

주식시장 악화로 추후 재추진 가능성

Issue&View
삼성重·ENG 합병 좌절

/김민준기자 mjk mjk@metroseoul.co.kr

'육상과 해상 플랜트의 통합'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다음 달 1일 합병하려던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주식매수 청구권에 발목이 잡혀 무산됐다.

삼성중공업은 17일까지 신청한 주식매수청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행사한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합병 계약상 예정된 한도를 초과함에 따라 삼성엔지니어링과의 합병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엔지니어링 주주들이 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를 청구한 금액은 총 7063억원으로 당초 정한 매수대금 한도인 4100억원을 넘어섰다. 또 삼성중공업에 대한 주식매수 청구금액은 9235억원으로 양사가 계약대로 합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려 1조6299억원의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주식시장 침체와 전반적인 업황 부진의 여파로 최근 주가가 주식매수청구 행사가보다 하락하자,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과도한 주식매수청구 부담을 안고 합병을 진행할 경우 합병회사의 재무상황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합병 해제를 결정했다.

이로써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25조원 규모의 초대형 종합 플랜트 회사로 도약하려는 삼성중공업의 목표는 일단 좌절됐다. 삼성중공업은 당장 나이지리아 에지나 FPSO 프로젝트 의 공정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삼성엔지니어링의 인력을 활용하려는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합병을 전제로 세워뒀던 내년 경영계획도 전면 수정해야 할 판이다. 또 글로벌 조선·플랜트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별다른 위기타개 방안 없이 실적부진을 계속 안고 가야 한다.

특히 삼성그룹은 이번 합병안 이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건설 사업을 재정비하는 등 전자·금융 계열사에서 중화학·건설 계열사로 확대하려는 사업재편 구도에 차질이 예상된다.

다만 합병 무산에도 양사는 해양플랜트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시장 지배력은 키우겠다는 당초의 합병 취지를 살려 플랜트 설계와 협업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삼성중공업은 거제조선소와 서울 서초사옥에 나눠 근무하던 해양플랜트 분야 설계, 연구개발 인력을 삼성엔지니어링의 서울 상일동 본사와 20분 거리에 있는 경기 성남시 판교 R&D센터에 입주시켰다.

삼성중공업 판교 R&D 센터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에 합병이 무산됐다고 해서 합병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합병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 1100원 돌파 엔저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7.3원 오른 1106.3원을 나타낸 19일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30대 그룹 사장단 1년새 32명 줄어

30대 그룹 중 12개 그룹이 지난 1년새 사장단 숫자를 18%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30대 그룹 251개 계열사의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상반기 기준 사장단 수가 줄어든 그룹이 12곳이었고 감소율은 17.8%였다.

이들 12개 그룹의 사장단 수는 236명에서 194명으로 줄었고, 감소폭은 최고 44%에서 최저 2%였다.

30대 그룹 전체 사장단 수는 348명으로 전년 동기 376명보다 7.4% 감소했다. 2014년 사장단 348명 중 대주주 일가는 69명이었고, 전문경영인은 279명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대주주 일가는 67명에서 2명 늘었고, 전문경영인은 309명에서 30명 감소했다.

1년새 사장단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권오준 회장 취임 후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선 포스코다. 지난해 18명에서 10명으로 44.4%나 감소했다. 포스코,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엠텍, 포스코플랜텍, 포스코엔지니어링, 포스코티엠씨 등 6개 계열사에서 각각 1명 이상씩 8명의 사장을 줄였기 때문이다.

2위는 현대그룹으로 8명에서 5명으로 37.5% 줄었다. 극심한 경영난에 빠진 현대상선과 경영정상화 자구안에 따라 지난 10월 매각한 현대로지스틱스의 대표이사 직위가 부회장·사장에서 부사장으로 낮아지며 사장단 몸집이 줄었다.

3위는 27명에서 18명으로 33.3% 감소한 동부그룹이었다. 매각대상 계열사인 동부제철, 동부하이텍, 동부메탈, 동부로봇과 자산 매각에 나선 동부CNI 등 5개 계열사에서 사장단이 대폭 줄었다. /정재균기자 kim@

수익형부동산 조망권 더해지면 '완판'

아파트 이어 오피스텔·상가 등도 성공 열쇠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부동산의 조망권 열풍이 거세다. 주로 주택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던 조망권 프리미엄이 수익형부동산시장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조망권이 확보된 수익형부동산을 '나오자마자 반짝 하고 사라진다'는 이유로 '반짝이'라고 부를 정도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성격이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바뀌면서 조망권을 강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입주민들이 실내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산·강·공원·바다 등이 내려다보이는 주거환경을 선호하고 있어서다.

이에 지난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공급된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시티'는 센트럴파크, 인천대교, 도심 등의 트리플 조망권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오피스텔 입주민의 특성을 감안해 인천대교 야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 계약률을 올렸다.

올 7월 서울 용산에서 분양된 '래미안 용산 SI' 역시 남산과 한강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덕분에 3.3㎡당 1500만원이라는 싸지 않은 분양가에도 평균 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오피스텔과 함께 대표적인 수익상품으로 꼽히는 상가는 집객효과 극대화를 위해 조망권의 힘을 빌리고 있다.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의 'H-Street'는 조망이 가능한 테라스형 스트리트 상가로 조성한 덕분에 단기간 내 100% 계약을 완료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강·공원 등의 조망권이 확보된 상가는 일반적으로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영업도 잘 되기 마련"이라며 "다만 조망권만 믿기보다 업종, 가격 등의 경쟁력도 함께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파트형공장으로 불리던 지식산업센터도 회색빛 공장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 조망권에 신경을 쓰는 추세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는 관악산과 한강, 여의도까지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해 90%에 가까운 계약률을 올렸다. /박선옥기자 psy1020@

겨울을 녹이는
한잔의
부드러움
처음처럼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교보, 우리은행 인수 '산 넘어 산'

정부, 신창재 개인 대주주에 매각 부정적 · 경쟁사 없으면 무산

Issue&View
28일 입찰 마감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교보생명이 이사회를 열고 우리은행 경영권(지분 30%) 인수를 위한 입찰에 참여할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정부가 개인 대주주에 매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일각에서 우리은행 인수 무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18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우리은행 예비입찰 참여를 위한 가격범위, 수량범위 등 가이드라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가격과 수량에 대해서는 금주 내 열리는 이사회 내 경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위임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했다.

교보생명의 우리은행 인수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공적인 성격이 강한 '은행'을 대주주가 있는 기업에 매각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당국은 신창재 회장이 대주주(지분 34% 보유)인 교보생명이 우리은행을 인수할 경우 특혜 시비를 우려하고 있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지분 4%)하고 있어 개인 대주주에게 매각할 경우 정치권과 금융권 안팎에서 큰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인수자금 확보도 문제다.

우리은행의 현 주가를 감안할 때 지분 30%의 값은 2조40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다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하면 경영권 지분 낙찰가는 3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지만 교보생명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자산의 3%인 1조3000억원 내외다.

교보는 현지 프랑스 악사(AXA)를 재무적투자자(FI)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금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쟁사인 안방보험이 입찰에 참여할 지도 불투명하다. 경쟁입찰인 경영권 매각의 경우 복수의 경쟁사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실상 입찰이 무산된다.

최근 안방보험은 우리은행 매각 주간사에 입찰 관련 사항을 문의하며 관심을 표명했지만 참여 여부를 비롯해 자문사 선정 등 구체적 행동에도 돌입하지 않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안방보험이 매각작신이 없는 상황에서 입찰에 참여할 지는 낙관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우리은행 인수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며 "확정적인 예비입찰 참여와 세부 계획은 이번주 내 열리는 경영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지난 6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56.97%)을 경영권(30% 지분)과 소수 지분(26.97%)으로 나눠 매각키로 했다. 입찰 마감일은 오는 28일이다.

배당자문형 랩 출시 신한금융투자는 오늘부터 배당주에 투자하는 '신한명품 플러스 배당 자문형 랩' 상품을 판매한다. 전문기관인 플러스자산운용의 자문을 거쳐 운용되며 최소 가입금액은 3000만원이다. /신한금융투자 제공

"소원을 말해 보세요"

KB카드, '징검다리 프로젝트' 실시

KB국민카드가 소원을 이뤄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로 변신했다.

19일 KB국민카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소 가지고 있던 소망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중 행사로 진행될 '징검다리 프로젝트'는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꿈과 소망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국민들에게 소망 실현의 기회를 주고자 마련됐다.

소망 실현 대상은 고객 본인은 물론 가족, 주변 지인 등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 사연에 대한 주제 제한은 없다.

1차 참가를 희망하는 고객은 오는 11월 30일까지 KB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행사 응모 후 이메일(wish.kkc@kbfg.com)로 사연을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연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총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상 인원 제한 없이 연말까지 소망 실현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망 실현 지원 대상자는 12월 5일 KB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권오경 KB국민카드 브랜드전략부 팀장은 "이번 행사는 KB국민카드가 고객 소망 실현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어 고객들의 꿈을 응원하고, 잠재력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란기자 ● wel2989

'뚝딱! 내 집에 희망 더하는 홈드레싱' 개최

LIG손해보험은 지난 18일 서울 역삼동 LIG아트홀에서 내집 꾸미기 지원 사업인 '뚝딱! 내 집에 희망 더하는 홈드레싱' 미니 클래스 행사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LIG손보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료 릴레이 강연 프로젝트 'LIG손해보험 미니클래스'의 일곱 번째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강연자로는 MBC '우리 결혼했어요', 온스타일 '놀랍지 아니한가' 등 방송 프로그램 인테리어를 담당하는 유미영씨가 맡았다.

희망을 더하는 인테리어 노하우 등 주제로 이어진 강의에서 유미영씨는 ▲2014 인테리어 트렌드 ▲색을 활용한 홈드레싱 노하우 ▲버리다 참고 둔 죽은 공간을 되살리기 ▲소품을 이용한 분위기 연출법 등을 설명했다.

박주진 LIG손보 커뮤니케이션담당 상무는 "보험사는 가족의 가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이번 강연은 가족의 보금자리라인 '집'을 보다 행복하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은행권 인력 구조조정 '태풍' 예고

주요 은행들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수익성 악화와 인적 구조의 고령화로 기존 인력의 생산성이 떨어진 데다 적자 점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국민은행은 오는 21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 취임 이후 희망퇴직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지 주목된다. 국민은행 직원은 지난 9월 말 현재 2만1395명으로 우리은행(1만5366명), 신한은행(1만4570명) 등 규모가 비슷한 다른 은행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앞서 국민은행은 강정원 행장 시절인 2005년 2200명, 민병덕 행장 시절인 2010년 3200명 등 신임 행장 취임에 맞춰 대규모 희망퇴직을 받았다.

그러나 국민은행 측은 "아직까지 인력 구조조정에 대해 노동조합과는 논의 또는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예년 수준인 400명가량을 희망퇴직 임금피크제 대상으로 분류하고, 내년 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하나은행과의 통합을 앞둔 외환은행은 이달말 59명은 특별퇴직으로 내보낸다. 올해 상반기와 합치면 113명으로 2011년(80명), 2012년(97명)보다 많은 규모다. 외환은행은 하나은행과의 통합으로 매년 400명씩 인력을 줄이고, 100~200명가량을 재용해 유휴 인력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외환은행은 지난 2009년 157명을 명예퇴직으로 내보냈다. 갑행추 인력 효율화 차원에서 하나은행과 함께 추가로 명예퇴직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밖에 신한은행은 2011년 230명, 2012년 150명, 지난해 140명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냈고, 올해말 노사 협의를 거쳐 추가로 희망퇴직을 받을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희망퇴직이 내년 초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규모 등은 정해진 게 없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한국스탠다드차타드·한국씨티 등 7개 시중은행은 올해 1~3분기 총 인건비로 4조5774억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은 3조7730억원을 내는 데 그쳤다.

/김현정기자 hjkim@

내년 코스피 '上低下高'

예상 밴드 '1842~2188' 전망

국내 증권사와 해외 투자은행(IB)들은 4분기부터 내년에 걸쳐 국내 장세가 대체로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내년 증시 전망을 내놓은 14개 국내 증권사들의 코스피 예상 밴드는 평균 1842~2188선이었다.

이 중에서 내년 박스피 탈출을 전망한 증권사는 동부증권 1곳뿐이었다.

나머지 증권사들은 국내 기업의 실적 부진과 글로벌 저성장, 각국 정책기조의 불균형, 미 달러화 강세 환경 등으로 코스피가 내년에도 박스권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내년 중반기 이후 미국의 금리인상이 이뤄지면 불확실성 제거로 인한 국내 증시의 상승 탄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유럽과 일본, 중국의 경기부양책 실시가 단행된다면 증시 여건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해외 IB들도 코스피 전망을 단기적으로는 하락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바클레이즈캐피탈은 3분기 기업이익 부진이 4분기 코스피 등락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경쟁업체의 부상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국내 IT기업의 위상이 흔들리고 자동차산업도 위축되는 등 대표 수출주의 약세가 주요 우려요인으로 거론됐다.

노무라 역시 미 달러화 강세와 엔저 환경으로 인한 한국 수출기업의 이익 부진을 점치며 연말 코스피 목표치를 당초 2150에서 1930으로 낮추기도 했다.

스탠다드차타드는 엔저 지속이 코스피에 투자하는 외국인의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봤고 JP모건 역시 환율과 삼성전자 이슈로 MSCI 한국지수가 신흥국 평균을 웃돌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해외 IB들은 국내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내년 국내 증시 상황은 호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JP모건은 내년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방향이 여전히 증시에 긍정적인 재료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BoA메릴린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원화 약세가 국내 수출기업 실적에 호재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코스피 상단 전망치를 가장 높게 제시한 증권사는 2350을 예상한 동부증권이었다.

동부증권은 코스피가 내년 상반기 2200까지, 하반기 2350까지 오르면서 박스권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으로 2260을 제시한 신한금융투자증권이 뒤따랐다.

삼성증권과 대신증권, 이트레이드증권은 2250을 전망했다. 상단 전망치가 가장 낮은 곳은 KDB대우증권으로 2050에 그쳤다.

하단 전망치를 가장 낮게 부른 곳은 KDB대우증권과 교보증권으로 모두 1750을 제시했다. 반면 이트레이드증권은 1920으로 하단 예상치를 가장 높게 잡았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참! 좋은 글로벌 체크카드' 출시 IBK기업은행은 19일 해외이용에 특화된 '참! 좋은 글로벌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카드는 전월 실적 조건 없이 해외직구 등 해외 이용 시 이용금액의 1.5%, 국내 이용시 0.1%가 캐시백된다. /기업은행 제공

희망나눔 헌혈 캠페인 우리아비바생명은 서울 본사와 전국 39개 영업점에서 동시에 '희망나눔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충정로 사옥 앞에서 실시한 헌혈행사에서 한 직원이 헌혈을 하고 있다. /우리아비바생명 제공

하나銀, 베트남 호치민에 지점

7년만에 내인가

하나은행이 호치민 지점 설립을 위한 내인가를 받았다.

19일 하나은행은 호치민 시 우소기 베트남 중앙은행(SBV)으로부터 호치민 지점 설립을 위한 내인가(Approval in Principle)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베트남 진출 7년만의 결실이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2007년 11월 호치민 사무소를 개소한 이래 지속적으로 지점 전환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2011년부터 본격화된 베트남 정부의 은행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지점 전환에 난항을 겪어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시작으로 베트남 한국대사관과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고위급 면담 등 정부차원의 지원 속에 외국계 민간은행 최초로 지점 설립을 위한 내인가를 취득했다"며 "이 시안 벡트의 한 축인 베트남 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을 들여온 일관성 있는 해외진출 노력이 결실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호치민 시를 포함한 베트남에는 약 3400여개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데다 베트남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베트남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이번 내인가는 하나금융그룹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 전략 사례로, 외환은행 하노이 지점과의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외환은행 하노이 지점은 지난 1999년 베트남 수도 하노이시에 개점해 영업중에 있으며 하나은행 호치민 지점은 내년 1분기 중 출범 예정이다.

/박상길기자 allss0203@

"감독당국 신뢰 회복 시키겠다"

진웅섭 금감원장 취임

진웅섭(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금융산업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에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금융산업과 감독당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 시키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특히 단기적인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에 편승해 특정 금융상품에 금융회사나 금융소비자의 자금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에 각별히 유의할 것"이라며 "건전성 감독에서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또 '금융이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진취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보수적인 금융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역량 강화를 유도해 기술금융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등 우리 경제의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막힘 없이 흐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의 틀을 '불신의 기조'에서 '상호신뢰의 기조'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역설했다.

시장과의 소통 확대 의지도 밝혔다.

진 원장은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촉진하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시장과의 소통을 확대하겠다"며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구두지도와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사소한 사항에 대한 책임 추궁 등 감독 관행의 개선을 바라는 시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년간 발생한 금융사고의 원인을 제재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해 내부통제시스템을 '두텁고 강한 방패' 처럼 굳건하게 구축하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금융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해 더 많은 감독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신한銀, 자동환매 서비스 확대

신한은행은 19일 목표달성 자동환매서비스를 채권형과 혼합형, 해외펀드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목표달성 자동환매서비스는 펀드가입 고객이 계좌별로 목표금액과 목표수익률을 설정 후 해당 조건에 달성 시 고객의 별도 환매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매되는 서비스로 지난 2012년 2월부터 국내주식형 펀드에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업그레이드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고객에게도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적립식 투자자나 일정기간 이상 투자를 원하는 고객이 서비스 가입으로 인해 자동 환매되지 않도록 하는 자동환매 유예기간을 도입해 고객이 설정한 조건이 달성돼도 자동적으로 환매되지 않는 옵션을 지원한다.

또 현재 펀드수익률과 등록한 수익률을 고객이 설정한 기간 단위로 SMS를 발송해 투자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고객들은 좋은 펀드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환매하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목표달성 자동환매서비스를 이용해 펀드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재테크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익한기자

아시아나가 도입할 'A350XWB' 들여다 보니…

넓은 실내 공간 '오즈 쿼드라 스마티움' 같은 디자인도 눈길

"A350XWB로 아시아에서 한국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한국이 아태 지역에서 에어버스의 주요 고객이기 때문이죠."

에어버스의 마이크 바소 마케팅 총괄 이사는 이번 한국 방문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보잉과 함께 전 세계 여객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에어버스는 차세대 항공기 A350XWB를 18일 한국에 처음 선보였다. 김포 아시아나 카고에서 국내 기자들을 대상으로 공개된 이 항공기는 에어버스의 2종 통로(복도가 2개 있는) 항공기 중 최신형 기종이다. 우리나라에서 시작해 도쿄, 하노이, 방콕, 쿠알라룸푸르로 이어지는 11일간의 월드 투어 중 첫 발을 이날 내딛은 것이다.

마이크 바소 마케팅 총괄 이사는 이날 메이필드 호텔에서 전 세계 항공기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하면서 "향후 20년간 3만1358대의 신형 여객기와 화물기의 수요가 예상된다"며 "이 가운데 2종 통로 항공기는 7786대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에어버스는 단일 통로 항공기 시장에서 A320으로, 2종 통로 항공기 시장에서는 A330으로, 초대형 항공기 시장에서는 A380으로 대응해왔다. 이번에 선보인 A350은 보잉 787과 777에 맞서 개발된 기종이다. 최대 369개 좌석을 수용할 수 있으며 한 번 급유로 8000nm(노티컬마일, 약 1만4800km)까지 운항할 수 있다.

외관에서는 곡선형의 샤클렛(Sharklet)이 눈에 띈다. 항공기 주날개의 끝부분에 달린 작은 날개인 샤클렛은 날개 끝의 와류를 줄여 연료소비를 감소시키는 장비다. 대한항공이 A320 시리즈의 샤클렛을 단독으로 생산·납품하고 있기도 하다. A350XWB의 샤클렛은 A320 시리즈보다 더 곡선형으로 설계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주날개 아래에는 롤스로이스의 차세대 트렌트 XWB 엔진이 장착됐다.

A350XWB의 기체는 복합소재가 53% 사용됐다. 이기에 티타늄과 고급 알루미늄 합금을 포함한 신소재 비율은 70%에 이른다. 에어버스 측은 "알루미늄 소재를 적용한 보잉 777보다 연료효율성이 25% 포인트 높고, 좌석 마일당 비용은 25% 포인트 낮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한국을 찾은 A350XWB는 좌석을 모두 갖추고 시험 비행을 하는 기종이다. 지난 2011년 한국에 첫 선을 보였던 보잉 B737 드림라이너가 좌석 없이 기체 내부가 공개된 것과 차이가 있다.

실내는 넓고 쾌적하다. 이코노미 클래스는 18인치(45.7cm) 좌석을 3개씩 총 9개 배치됐다. 보잉의 17인치(43.2cm) 좌석보다 넓어 옆 사람과 어깨를 부딪칠 일이 줄어든다. 특히 옆 창의 기울기가 적어 창가 승객의 공간에 여유가 생겼다. 이 기종의 이름이 XWB(eXtra Wide Body)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좌석에는 탈레스의 4세대 HD(고화질) 와이드 스크린과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장착됐다. 리모컨은 스마트폰처럼 터치식으로 조절할 수 있고, 와이드 스크린 역시 스마트폰처럼 줌-인, 줌-아웃 기능을 갖췄다.

/장기류기자 ferrari@metroseoul.co.kr

업계 에어워셔 품질 개선 심혈

올 시장 30만대 예상

실내활동이 증가하는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에어워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난방가동으로 건조해진 실내공기의 습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공기청정 기능까지 강화되고 있다.

이에 국내 에어워셔 생산 업체들이 제품 디자인과 품질 개선 등 사용자 편의를 강화하고 있다. 에어워셔는 지난해 소비자 단체가 공기청정 기능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과 함께 소비자에게 외면받았다.

이에 제조사들은 올해 공기청정기능 품질을 공인받은 CA(Clean Air) 마크 획득을 전면에 내세우며 소비자의 신뢰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 에어워셔 선두주자인 대유위니아는 올해 총 6종의 2015년형 위니아 에어워셔(사진) 제품라인업을 선보였다. 7단계 공기청정시스템을 장착해 공기청정 기능을 강화했다. CA마크뿐만 아니라 위니아 에어워셔는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품질인증 시험을 통과한 가습기 제품에 부여되는 'HH(Healthy Humidifier) 마크'와 제습기 제품에 부여되는 HD(Healthy Dehumidifier) 마크, 대한아토피협회가 인증하는 '아토피 안심마크'도 획득하며 품질력을 인정받았다.

LG전자도 CA 마크를 획득해 공기 정화 능력을 인정받은 에어워셔(LAW-A049PG)를 선보였다. 초미세먼지보다 125배 작은 0.02㎛(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먼지까지 제거하는 '초미세먼지 필터'와 냄새·일산화탄소 등 유해 가스를 제거하는 '탈취필터'로 구성된 '집중청정 키트'를 제공해 소비자가 필요에 따라 제품의 공기 흡입구에 탈부착할 수 있다.

반면 삼성전자와 코웨이는 에어워셔 대신 '가습공기청정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삼성전자는 CA, HH마크를 획득한 '삼성 자연가습청정기'를 판매하고 있다. 코웨이는 초미세 자연가습시스템과 4단계 정바이러스 공기청정시스템이 탑재된 '스스로살균 가습공기청정기(APMS-1014D)'를 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에어워셔 시장은 올해 30만대 규모로 커질 것이다"며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추위가 빨리 다가오면서 에어워셔나 자연가습공기청정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소로기자 yore@

현대차 '2014 LA 오토쇼' 참가 현대자동차는 20일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2014 LA 오토쇼(2014 Los Angeles Auto Show)'에 신형 쏘나타, 신형 제네시스 등 총 17대의 차량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현대차가 2014 LA 오토쇼에 전시된 신형 제네시스. /현대차 제공

감정가 80억 '삼성동 아이파크' 경매

역대 최고가 아파트 경매물건이 등장했다.

19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이스트윙동 36층 펜트하우스(전용면적 269㎡)가 감정가 80억원에 경매에 나왔다.

이는 단일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물건 중 역대 최고가로, 이전까지는 도곡동 타워팰리스 C동 55층의 감정가가 65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80억원짜리 삼성동 아이파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2계에서(사건번호 2014-8307) 오는 12월 4일 1회차 입찰에 부쳐질 예정이다. 채권자는 CJ E&M이며 지난 2013년 4억217만원 상당의 가압류를 실시한 것에 대한 강제경매다. 청구금액은 4억7335만원이다.

이 외에도 1금융권과 저축은행 등에 동기부상 70억7717만원 상당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고, 세금 체납에 따른 삼성세무서의 압류도 걸려 있다. 소유자는 김수경 수도약품공업 대표로 지난 2012년 8월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해당 물건은 1회만 유찰되더라도 최저 매각가가 64억원까지 떨어지는 만큼 12월 4일 경매에서는 유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주기자 (email)

지난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13의 모습. 당시 역대 최대 규모인 29만6000 관객을 동원했다. 지스타 사무국 제공

10년의 역사 '게임의 신천지는 끝나지 않았다'

각종 규제에도 참가 기업·관중 꾸준히 늘어

게임의 신천지는 끝나지 않는다

2005년 '오라! 게임의 신천지가 열린다'란 구호 속에 시작된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가 10주년을 맞았다. 각종 게임 규제로 침체된 시장을 되살리려는듯 올해 지스타 슬로건은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로 선정됐다. 매년 11월 부산을 게임의 메카로 만든 지스타의 10년 주요 발자취를 짚어 본다.

초대 지스타는 2005년 11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한국국제전시장(현재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다. 당시 15개국 156개사가 참여했으며 부스 수는 1774관, 관람객 수는 15만여명이었다. 처음 열리는 국제 게임 전시회인만큼 대중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온라인 게임에 편중됐다는 비판도 있지만 규모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면서 지스타 정례 개최의 토대가 된 행사로 기

록된다.

두번째 지스타는 이듬해 11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 개최됐다. 초대 지스타와 비슷한 규모로 13개국 152개사가 참가했으며 부스 2000관, 관람객 수 16만여 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사행성 게임 바다 이야기 때문에 겪지는 분운을 겪었다. 이같은 영향 때문에 2007년 열린 제3회 지스타는 이전 행사보다 개최 규모가 줄어들었다.

한편 2008년 상반기에 지스타를 주관해 온 지스타조직위원회가 해체돼 한국게임산업진흥원으로 통합되는 일이 발생했다. 새 정부 출

<지스타 역대 슬로건>

개최년도	국문 슬로건	영문 슬로건
2005년	오라! 게임의 신천지가 열린다	
2006년	게임으로 시작되는 세상	Let the games begin
2007년	게임을 즐겨라, 비즈니스를 즐겨라	Exciting games, growing business
2008년	게임으로 여는 즐거운 세상!	Log in your dream
2009년	아름다운 게임의 바다, 부산	Beautiful Game Ocean, in Busan
2010년	게임 그 이상	Game and More
2011년	게임, 세상과 접속하다	Connect With Game
2012년	게임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다	Game, touching the world
2013년	꿈을 이루는 게임문화축제	Game Together, Dream Forever
2014년	게임은 끝나지 않는다	Game is not over

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으로 한국게임산업진흥원에 편입된 것이다. 급작스런 주관사 변화로 2008년 11월 예정된 지스타의 정상 개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다. 우여곡절끝에 2008년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제4회 지스타가 열렸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지스타의 미래 방향에 대한 각계각층의 고민이 깊어졌다.

2009년 지스타는 게임 전시회에 문화 행사를 접목한 '게임 문화 축제'로 변신을 시도했다. 지스타의 새로운 출발을 기념해 지스타 2009는 일산 킨텍스를 벗어나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됐다. 2009년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열린 지스타에는 21개국 198개사가 참가했으며 신종플루에도 불구하고 24만명이 방문했다. 국산 게임의 세계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수출상담이 1591건, 4370만 달러 규모로 진행되는 성과도 얻는다. 당시 지스타 슬로건은 부산 첫 개최지를 기념하는 '아름다운 게임의 바다, 부산'이었다. 부산에서의 지스타 성공 개최로 부산 벡스코는 지스타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후 지스타는 게임업계 최대 축제로 떠오르며 매년 11월을 장식하고 있다. 참가 기업과 관중도 꾸준히 늘어나 2010년에는 1448부스·28만3000관객, 2011년 1813부스·28만9000관객, 2012년 2111부스·29만6000 관객을 동원하며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지스타에는 32개국 512개사가 참가해 2261부스를 기록했다.

이같은 관심 속에 올해 지스타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지스타 2014에 참가한 기업만 35개국 617개사로 벡스코 시설을 모두 예울 정도다. 방문 관중 수도 지난해 기록을 뛰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국발 게임의 위협과 각종 게임 규제로 국내 게임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지만 이번 지스타가 중흥의 발판이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올해 지스타 슬로건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가 의미심장해지는 대목이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나성범·박기량 지스타에 뜬다

사인회·채용박람회 등 이벤트도 풍성

올해 지스타가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지는만큼 즐길거리도 더욱 풍성하다.

먼저 지스타의 부산 개최를 응원하는 롯데 자이언츠와 NC 다이노스의 야구 열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엔씨소프트는 NC다이노스 부스 운영을 통해 자사의 지스타 상징이 들어간 NC 다이노스 유니폼, 모자, 티셔츠 등을 판매한다. 지스타 개막 둘째날인 21일에는 NC 다이노스의 나성범, 이재학, 박민우 선수가 벡스코를 깜짝 방문해 사인회를 가질 예정이다.

엑스엘게임즈는 인기 치어리더 박기량의 롯데 자이언츠 응원 퍼포먼스 행사를 21일과 23일 개최한다. 롯데 자이언츠 치어리더 이벤트는 각각 오후 2시30분과 4시 30분부터 30분간 진행된다.

한편 지스타 사무국은 행사 기간 입장권 현장 구매자 100명에게 지스타 럭키백을 증정한다. 이벤트 당첨 여부는 현장 입장권 발매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지스타 10주년을 기념해 제1회 지스타가 개막했던 2005년 11월에 태어난 모든 어린이와 가족에게 무료 입장 혜택을 준다. 2005년 11월 10일 초대 지스타 개막일에 태어난 어린이는 특별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지스타 10주년 축하 UCC 공모전도 열린다. 지스타 10주년을 축하하는 UCC를 제작하고 본인의 SNS에 게시하면 심사를 통해 태블릿PC 구글 넥서스9 등을 선물로 받는다.

게임 업계 취업 준비생을 위한 뜻깊은 채용 박람회도 마련된다. 23일 벡스코 1전시장에서 게임관련 인사 담당자가 직접 참가하는

'게임 기업 채용 박람회'가 열리는 것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박람회에서는 현장 면접, 이력서 사진 촬영, 취업 상담, 이미지 특강 등의 풍성한 행사가 진행된다.

지스타 마지막날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함께하는 '게임 애니송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23일 오후 2시 BIFF 영화의 전당 야외홀에서 열리는 게임 주제곡 콘서트는 부산메트로폴리탄 팝스 오케스트라, 타키하시 요코(일본), 이용신(한국)의 공연으로 꾸며진다. 지스타 참관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장윤희기자

역대 최대 물량 공세… '돈슨의 역습'

NEXON

MMORPG, FPS, TCG, 전략 등 종류도 다양
메이플2·서든2·광개토대왕 등 게이머 홀릭

국내 최대 게임사인 넥슨이 초심 복귀를 천언했다

이번 지스타를 계기로 '게임을 사 모으는 회사' 등 뜻하는 '돈슨'의 이미지를 벗고 게임 개발사로서의 진정한 역량을 다시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넥슨은 '돈슨의 역습'이라는 주제로 20~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14'에서 역대 최다인 14종의 출품작을 공개한다

자체개발 온라인 신작 4종, 자체개발·퍼블리싱 모바일 신작 6종, 퍼블리싱 온라인 신작 5종으로, 장르도 MMORPG, FPS, TCG, 전략 시뮬레이션 등 다채롭다

자체개발 온라인 신작은 전작의 명성을 이어갈 '메이플스토리2'와 '서든어택2', 일본 애니메이션 원작을 바탕으로 네오플이 개발하는 FPS게임 '공각기동대 온라인', 띵소프트의 카툰렌더링 MMORPG '페리아 연대기' 등이다

◆ 공각기동대 온라인 차세대 FPS 주목

이중 쿼터뷰 방식의 풀 3D MMORPG인 '메이플스토리2'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메이플스토리2'는 블록으로 이뤄진 독특한 세계를 바탕으로 개성 있는 캐릭터 커스터마이징과 다이내믹한 전투 액션이 특징이다. 나만의 의상이나 집을 만들 수 있는 사용자 제작 콘텐츠(UGC)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히 원작 '메이플스토리' 이전 시대(프리퀄)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다양한 직업과 수많은 몬스터, 개성 넘치는 아이템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 FPS게임 '서든어택'의 후속작인 '서든어택2'도 주목할 만한 신작이다. 언리얼엔진3로 구현된 고품질의 그래픽에 한층 향상된 타격감을 보태 더 강렬한 전투의 재미를 선사한다.

'공각기동대 온라인'은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 S.A.C'를 원작으로 한 차세대 온라인 FPS게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원작에서 등장하는 '공안9과'의 주인공이 되는 경험과 함께 차별화된 근 미래 전투를 경험해볼 수 있다.

◆ 클로저스 10만 유저 흥행 예고

새로운 시도와 참신함으로 무장한 모바일 신작으로는 데브캣 스튜디오에서 개발하는 정통 TCG '마비노기 듀얼'을 비롯해 출시 전부터 독특한 세계관과 게임성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왓 스튜디오의 '야생의 땅: 듀랑고', 중세 판타지 스타일의 액션 RPG '프레타'를 선보인다.

또 엔도어즈 김태곤 사단에서 15년 만에 선보이는 역사 전략 시뮬레이션게임 '광개토대왕'과 인기 모바일게임 '영웅의 군단'의 세계관에 기반한 액션RPG '영웅의 군단: 레이드'는 시연 버전으로 게이머들을 만난다. 모바일게임 퍼블리싱 자회사 넥슨M이 글로벌로 선보이는 '도미네이션즈'(개발 빅휴즈게임즈)도 영상으로 관람객의 눈길을 끈다.

퍼블리싱 온라인 신작은 비공개 시범 테스트 모집에 10만 명 이상의 유저가 몰리는 등 높은 관심을 받은 나딕게임즈의 신개념 액션 RPG '클로저스'가 대표적이다. 동물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와 박진감 있는 전투가 매력적인 엔진스튜디오의 신감각 파워 RPG '아르피엘', 액션과 MMORPG의 재미를 모두 느낄 수 있는 액션게임 명가 KOG의 키보드액션 MMORPG '아이마' 등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밖에 김학규 대표가 설립한 IMC게임즈의 MMORPG '트리 오브 세이비어', 쉬워이브소프트의 '레이저 유니버스' 등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한 온라인게임도 선보인다.

박지원 넥슨 대표는 "창립이래 가장 많은 신작이 출시되는 내년을 지속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겠다"며 "그 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새롭게 시도하는 것들을 이번 지스타에서 펼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모바일 스팟

4개면 뒤덮는 게임영상 압권

올해 넥슨관의 전시 콘셉트는 '라인업 개수만큼이나 파격적이다'. 넥슨은 일부 모바일 게임을 제외하고는 게임시연을 제공하지 않고 미디어 아트를 자용한 대형 스크린으로 출품작별 신규 프로모션 영상을 보여주는 방식을 택했다.

180부스 넥슨관은 360도 영상관을 구현한 '미디어갤러리', 다양한 현장 이벤트가 펼쳐지는 '슈퍼스테이지'를 비롯해 모바일 게임 시연이 가능한 '모바일스팟' 등 3개의 독립공간으로 구분됐다.

메인 전시관이라고 할 수 있는 '미디어갤러리'에서는 '메이플스토리2' '서든어택2' '공각기동대' 등 대작 타이틀의 신규 영상을 상영한다. 특히 '미디어갤러리' 내벽 4개면을 덮는 게임영상이 압권이다. 바닥에 설치된 '미디어폼'을 통해 관람객에게 게임별 일러스트, 캐릭터, 시스템 등 세부정보도 제공한다.

오픈형 무대 '슈퍼스테이지'에서는 시간대별로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해 현장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군다. '메이플스토리2' '영웅의 군단: 레이드' '공각기동대' '클로저스' 등의 신작에서는 개발자가 직접 출연해 게임에 관해 소개하는 쇼케이스를 연다.

또 '서든어택2'에서는 '서든어택 e스포츠 리그'에서 활약 중인 유명선수를 초청해 이벤트 대전을 펼친다. 이 밖에도 부스 브레이크 타임 사이 '슈퍼스테이지' 대형 스크린에서도 '도미네이션즈' '프레타' 등의 신작 모바일 게임의 트레일러 영상이 최초 공개된다.

'모바일스팟'에서는 '마비노기 듀얼' '영웅의 군단: 레이드' '광개토대왕' 등 총 3가지의 모바일 게임을 시연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야외부스를 통해 넥슨 사회공헌 브랜드인 '넥슨 핸즈'에서 운영하는 '카페스토어'와 '넥슨 컴퓨터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where 그리고 able' 팝업 유지업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이국명기자

리니지 이터널 프로젝트 혼 관람객 사로잡는다

3년 만에 복귀 엔씨소프트 기대 커 100명 동시 시연 '스크린 X' 눈길

NCSOFT

'우주정복(CONQUER THE SPACE) 현재 그리고 미래로의 초대'

엔씨소프트가 이같은 슬로건을 내걸고 3년 만에 지스타에 복귀한다.

엔씨소프트는 올해 이번 지스타에서 역대 최대 참가규모인 200부스로 전시관을 꾸민다. 초대형 전시관에서 자사 대작 '리니지이터널(Lineage Eternal)'을 비롯해 지금까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프로젝트 혼(Project HON)', '블소 모바일(B&S Mobile)' 등 다수 신작을 공개한다.

◆ 리니지 이터널 모바일도 주목

무엇보다 주목받는 신작은 리니지 시리즈의 세계관을 잇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이터널'이다. 2011년 지스타에서 영상으로 처음 일반에 공개돼 화제를 모았던 게임이다. 이번 지스타에서는 체험 버전이 최초로 공개된다. 대규모 시연존에서 동시에 100여 명의 방문객이 리니지 이터널을 직접 즐길 수 있다. 또 지스타 행사장에서 리니지 이터널의 모바일 버전을 살펴볼 수 있다.

거대 메카닉(전투기계) 병기를 소재로 한 대작 게임인 '프로젝트 혼'도 게이머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지스타 현장에 마련된 총 100석 규모의 '스크린 X' 상영관에서 프로젝트 혼의 플레이 영상을 관람할 수 있다. 3면의 스크린으로 제작돼 게임의 생동감을 한층 끌어올린 '스크린 X'는 지스타가 열리는 기간 동안 서울 청담 CGV와 부산 센텀시티 CGV에서도 만날 수 있다.

프로젝트 혼

◆ 블소 모바일 출격 완료

총 6종의 모바일 신작도 눈길을 끌고 있다.

'블소 모바일'은 인기 게임 '블레이드 & 소울'의 IP(지적재산권)를 활용한 것으로 주목받는 신작이다. '블레이드 & 소울'의 스토리와 캐릭터를 배경으로 모바일 환경에 맞게 새롭게 각색했다. 블소의 SD(Super Deformed)캐릭터가 문파원들과 힘을 합쳐서 난관을 극복하는 전략적인 전투를 맛볼 수 있다.

'아이온 레기온스(AION LEGIONS)'는 천족과 마족의 끝없는 전투 전장인 '아이온'의 세상을 모바일로 구현한 게임이다. 더욱 진화된 아이온의 보스들과 대규모 레이드도 즐길 수 있다.

감성 패션 SNG인 '패션스트리트'(Fashion Street)는 디자이너가 돼 패션샵을 경영하고 친구들과 협력해서 지역(Street)을 확장하는 독특한 재미가 눈길을 끈다.

야구 게임 명가 엔트리브소프트의 '프로젝트 H2'도 게이머들을 만난다. 프로야구 라이선스와 데이터를 반영해 개발 중인 '프로젝트 H2'는 이용자가 직접 구단주가 돼 선수를 영입하고 오너를 구성해 다른 이용자와 승부를 펼칠 수 있다.

이밖에 온라인 캐주얼 골프 게임의 모바일 버전 '팡야 모바일', 온라인 게임 '트릭스터'의 캐릭터를 활용한 '소환 시키고 되고싶어'도 엔씨소프트 부스를 빛내고 있다.

지스타를 총괄하고 있는 김택헌 최고사업책임자(CBO)는 "앞으로 엔씨소프트가 보여줄 거침없는 도전과 변화의 모습을 신작에 담았다"며 "신작을 직접 체험하는 것 뿐만 아니라 대형 영상관 등 새로운 형태로 게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자랑"이라고 말했다.

200부스 체험 위주로 운영 눈길

'ㄱ' 형으로 모든 방향 관람 가능해 편리

엔씨소프트 전시관은 출품하는 게임과 엔씨소프트의 미래 비전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여주는 '박스 스트림(Box Stream)' 콘셉트로 형상화한 것이 특징이다.

리니지부터 프로젝트 혼, 모바일까지 굉장히 다른 배경의 게임들은 '엔씨소프트'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보여주기 위해 하나의 끈을 잇는 모습으로 설계됐다.

위치는 다른 구역 보다 천장이 높은 소위 벡스코 명당자리인 좌측이다. 총 220개부스로 'ㄱ'부스의 모양이다. 'ㄱ'부스는 전체적으로 동선 또한 원활히 관리가 가능해 어느 방향에서든 멋진 부스를 감상할 수 있다.

총 200개 부스에 각기 다른 게임들이 다양한 체험을 선보일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추가로 20개 부스를 확보해 관람객 휴식터인 카페테리아를 운영한다.

관람객들이 엔씨소프트 신작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체험 위주 부스 운영도 눈길을 끈다.

NC다이노스와의 콜라보레이션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지스타 현장에서 NC 다이노스는 구단 홍보와 상품 판매를 위한 전용 부스를 운영한다. 스포츠 상품 전문 브랜드 Wilson(윌슨)이 엔씨소프트의 지스타 심벌을 활용해 제작한 의류(점퍼, 티셔츠, 모자)를 판매한다. 21일에는 NC 다이노스의 나성범, 이재학, 박민우 선수가 지스타 현장에 깜짝 방문해 사인회 등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이국명기자

리니지 이터널

'토귀전 극' 'DOA5LR' 눈길

체험행사·코스튬 이벤트도 함께 열려

코에이테크모의 '토귀전 극'과 '데드 오어 얼라이브 5 라스트 라운드'(DEAD OR ALIVE 5 LAST ROUND: DOA5LR) 체험관도 이번 지스타에서 만날 수 있다.

디지털터치에서 한글화해 발매 예정인 '토귀전 극'은 소니의 휴대용 비디오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비타 전용이다. 일본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시대에서 몬스터들과 싸우는 헌팅 액션이다.

'DOA5LR'도 한국에서는 최초로 플레이스테이션4 버전으로 공개된다. 3D 대전 격투 게임 '데드 오어 얼라이브 5'를 기반으로 개발돼 실감나는 그래픽이 압권이다. 지스타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한편 게임 내 캐릭터들의 코스튬 이벤트도 눈길을 끈다.

'토귀전 극'의 새로운 캐릭터 '호로우'와 'DOA5LR'의 간판 캐릭터 '카스미', 최근 인기 급상승 중인 '마리 로즈'의 세 명의 캐릭터를 만날 수 있다.

캐릭터들과 1대 1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 이벤트도 열려 게이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 이국명기자

로스트아크 아제라 스카이사가 퍼피 '4각 편대' 출격

스마일게이트는 흥행작 '크로스파이어'의 뒤를 잇는 신작을 지스타에 대거 선보인다. 출품작은 온라인 게임 '로스트아크' '아제라' '스카이사가', 모바일 게임 '프로젝트 퍼피'를 비롯해 총 4종이다.

/장웅회기자 unique@metroseoul.co.kr

스마일게이트 지스타 첫 출전 주목
국내 시장 적극 개척 '제 2 도약' 선언

로스트아크

스마일게이트의 이번 지스타 참가는 첨렵 의미가 남다르다. 그동안 스마일게이트는 일인칭총격게임 '크로스파이어'의 중화권 흥행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높은 인지도를 쌓아왔다. 스마일게이트는 지스타 참가와 신작 공개를 통해 국내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스마일게이트의 지스타 최고 화제작은 MMORPG '로스트아크'다. '크로스파이어' 개발력이 고스란히 구현된 '로스트아크'는 3년간 공들인 대작 온라인 게임이다. 이 게임은 잃어버린 아크의 힘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화려하고 묘화된 전투, 역동적이면서 섬세한 그래픽, 탄탄한 게임 시나리오로 완성도를 더했다. 지난 13일 공개된 '로스트아크'의 예고편은 업로드 5일만에 유튜브 조회수 50만을 넘기며 출시 전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외 게임 웹진에서도 '로스트아크' 동영상을 공유하는 등 일찌감치 세계적 인기를 예고했다.

또다른 MMORPG '아제라'도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성황리에 2차 비공개 테스트를 마친 '아제라'는 전쟁 콘텐츠와 각종 전투 장비가 백미다. 삼국지를 연상하게 하는 삼국 전투 방식과 점상 대결은 전쟁 게임 특유의 웅장함을 선사한다. 스마일게이트는 지스타에서 '아제라'의 시연 버전을 선보인다.

한편 '프로젝트 V'로만 알려졌던 신작 온라인 게임 '스카이사가'가 베일을 벗는다. 이 게임은 세계 시장 공략을 목표로 스마일게이트와 영국 개발사 레디언트 월드가 함께 개발했다. '스카이사가'는 지난 12일 영국에서 먼저 소개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스타를 통해 첫선을 보인다. 정식 서비스는 내년부터 시작된다. '스카이사가' 이용자는 신비롭고 강력한 재료를 획득하기 위해 광물을 캐내고 사냥에 나서야 한다. 다른 이용자와 경쟁하고 싶다면 PVP 시스템을 선택해 자신이 수집한 아이템으로 대결을 즐길 수 있다. 고대 왕국의 심오한 세계관은 영화 해리포터 분위기를 자아내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귀엽고 깜찍한 애견 육성 스마트폰 게임도 눈길을 끈다. 스마일게이트는 강아지 육성 소셜네트워크 게임 '프로젝트 퍼피'로 모바일 게임 시장에 도전한다. 실제 강아지를 키우는 듯한 설정과 생생한 동물 캐릭터로 강아지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그룹 회장은 "지스타 참가를 통해 우리나라의 많은 이용자에게 더 친숙한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제라·스카이사가·프로젝트 퍼피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문명 온라인' 지스타 최대 흥행돌풍 일으킬까

엑스엘게임즈, 콘텐츠 대폭 강화
25일부터 6일간 2차 테스트 진행

XLGAMES

고대부터 미래를 경험하고 싶다면 '문명 온라인'을 클릭하자.

엑스엘게임즈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문명 온라인'을 지스타에 출품한다. 이 게임은 지구의 모든 역사를 배경으로 실존 인물들과 영웅담을 만들어간다. 이용자는 한명의 시민으로서 같은 문명에 참여한 동료들과 함께 다른 문명과 경쟁한다. 자신이 속한 문명의 지속 시간은 7일이다. 일주일 안에 강력한 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박진감이 게임의 묘미다.

'문명 온라인'의 무대는 방대하다. 처음에는 돌도끼 한개가 전부일지라도 문명이 발달할수록 병사와 무기들이 진화된다. 소총으로 무장한 공수부대 마차에서 장갑차, 탱크, 미사일 차량, 프로펠러 비행기,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투기까지 등장한다. 핵폭탄도 개발할 수 있다.

이 게임의 백미는 다양한 이야기 구성이다. 이용자는 직업과 시대를 자유자재로 선택하며 로마 시대를 이끄는 장군이 되거나 위대한 건축물을 짓는 건축가로 활동할 수 있다. 같은 게임이라도 선택에 따라 무궁무진한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것이다.

송재경 엑스엘게임즈 대표는 "'문명 온라인'은 문명의 발전을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는 혁신적인 작품"이라며 "MMORPG 장르는 인생의 축소판이라 생각한다. '문명 온라인'에서 보다 역동적인 세계를 나누기 위해 기존 MMORPG의 불문율과 같았던 '길'을 구현하려 했다"고 작품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1차 비공개 테스트(CBT)를 성공적으로 마친 '문명 온라인'은 지스타 직후인 25일부터 6일간 2차 테스트를 진행한다. '문명 온라인' 2차 CBT에서는 기존에 선보였던 로마, 이집트, 중국 문명에 이어 아즈텍 문명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용자는 4개 문명 중 하나를 선택해 고대, 고전, 중세, 르네상스 시대의 4개 시대를 경험할 수 있다. '문명 온라인'은 2차 CBT 신청자 중 2명을 선정해 아즈텍 문명의 발상지인 멕시코 해외여행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박인상 '문명 온라인' PD는 "새로운 문명과 시대, 승리조건을 추가해 전략 긴장감을 높였다"며 "대규모 문명 간 전쟁의 박진감, 다양한 탈 것들로 세계를 누빌 수 있는 다채로운 경험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웅회기자

유통업계, 연말 마케팅 본격 시동

귀여운 캐릭터 무릎담요부터 다이어리까지 다양

유통업계가 때 이른 추위에 겨울맞이에 분주하다. 성큼 다가온 겨울과 연말 특수를 겨냥해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면서 벌써 연말 마케팅에 돌입하고 있다.

매해 연말이 되면 유통업체들은 다양한 경품 이벤트와 함께 자사나 협업 한 캐릭터를 활용, 다양한 소품을 선보이며 고객의 이목을 끌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먼저 나뚜루팝은 최근 헬로키티와 콜라보레이션한 헬로키티 무릎담요가 포함된 패키지 상품인 '헬로키티 담요팩'을 선보였다.

이 상품을 통해 나뚜루팝 아이스크림 중 네 가지 맛을 선택할 수 있는 쉐어컵과 헬로키티 무릎담요를 할인 가격에 판다.

롯데네슬레코리아는 네슬레 핫초코 제품 리뉴얼을 기념해 핫초코 오리지날(600g) 제품 구입 때 네슬레 로고가 새겨진 무릎담요를 선물로 증정하는 패키지를 내놨다. 총 3만6000개를 준비했으며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의 대형마트에서 선착순 판매한다.

이디야 커피는 겨울 한정 판매 제품인 수플레 치즈케이크 리테 구매 고객에겐 다이어리와 달력 세트를 주는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후 영수증에 출력된 행운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바로 당첨 확인이 가능하다.

다이어리 표지 커버는 이탈리아산 고급 가죽을 사용했고, 내지 디자인은 잘 쓰지 않는 기능을 과감히 배제해 실용성을 강조했다.

치킨브랜드 bhc는 전화 주문과 카페형 매장인 bhc 비어존에서 마법의 치킨 '뿌링클' 구매객에게 캘리그래퍼인 '아넌리스 와 협업을 통해 제작한 2015 감성 다이어리를

나뚜루팝 '헬로키티 담요팩', 네슬레 핫초코 오리지날 600g 담요 증정 스페셜 패키지

제공한다. 표지는 하드케이스로 처리해 고급스러운 질감을 살렸고 프리노트 페이지도 늘려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됐다.

매년 특별 제작한 다이어리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할리스 커피와 스타벅스 이 외에도 디저트 카페 투썸플레이스도 개성 넘치는 제품으로 인기몰이 중이다.

/정혜인기자 [이메일]@metroseoul.co.kr

영국인 입맛 사로잡는 한국 식품 홈플러스와 KOTRA, 테스코 등은 1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뉴몰든에 있는 테스코 대형마트에서 '글로벌 독낸상품을 위한 한국식품전'을 열었다. 이 행사는 12월 8일까지 런던 내 42개 테스코매장에서 계속된다. /홈플러스 제공

유통업계 '역직구' 탄력 받나

해외배송 등 시작… 한·중 FTA 효과 기대

유통업계가 포화된 내수 시장에서 해외로 발을 돌리고 있다. 이 가운데 역직구가 주목받으면서 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19일 전자상거래수출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역직구 실적은 370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 중국 해외 직구 시장은 27조원으로, 2018년에는 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글로벌 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 유통업계의 경우 중국인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상당하다.

실제로 G마켓은 올해 홍콩·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판매가 62%나 됐다. 영문 11번가는 전체 구매자의 35%가 중국인이다. 글로벌 롯데닷컴은 구매 건수 기준으로 33%가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또 한·중 FTA 타결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게 되면 역직구 시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련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유통업계는 역직구 사이트를 오픈하는 한편 중국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서두르고 있다. 해외 배송을 하는 업체도 늘고 있다.

인터파크는 중문과 영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쇼핑사이트를 이달부터 운영 중이다. 롯데닷컴은 2월 해외 배송을 시작해 197개국에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홈쇼핑업계 역시 역직구 사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보고 있다.

GS샵은 최근 홈쇼핑 업계 최초로 '세계로 배송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를 통해 해외 판매망이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과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영문, 중문 사이트를 오픈하고 해외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CJ오쇼핑은 합자 홈쇼핑 법인 동방CJ를 활용한다. 동방CJ 온라인몰에 중문판을 연내로 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11월 중으로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티몰 국제관에 1000개 가량의 상품을 입점 시킨다.

이 외에 갤러리아몰과 위메프가 중국어 사이트를 시범 운영 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중 FTA 타결로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중국 프리미엄 시장 공략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 시장을 어느 국가의 유통업체가 먼저 잡느냐가 관건인데 한류를 기반으로 한국 유통업계가 이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이메일]

강강술래, 송년모임 단체예약 폭증

사전예약 때 '한우육회·현수막' 서비스
천일염 증정 '알뜰김장 대축제'도 진행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11월 중순부터 송년회나 회식 등의 모임을 앞당겨 치르는 사람들이 늘면서 단체예약 접수가 밀려들고 있다고 밝혔다.

강강술래는 1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연회장을 비롯해 15명 이상의 소규모 단체룸 등 매장별로 다양한 공간을 마련해 모임의 성격에 맞춰 품격 있는 행사를 치를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또 자연과 어우러진 매장 내에서 야외 라이브공연과 신곡을 즐기는 가 하면 벽과 파티션에 고객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시골의 정겨운 풍경이나 아름다운 산수를 그려 각 매장 특성에 맞게 힐링 송년회를 치를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2월 말까지 8인 이상 사전예약 때 한우육회를 테이블 당 하나씩 서비스로 제공한다. 20인 이상 예약할 경우 한우육회와 함께 현수막을 제작 지원한다. 단 구이메뉴(정식류, 특미 제외) 주문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주일 전까지 예약해야 한다.

다음 달 3일까지는 '알뜰김장 대축제'도 벌인다. 매장(청담·대점 제외)에서 5만원 이상 결제 때 국내산 갯벌천일염 3kg을 무료 증정한다. 행사기간 동안 신규가입 멤버십 회원에게도 천일염(3kg)을 준다.

같은 기간 전 매장에서는 정통한 우짝갈비(1.08kg, 3만900원), 특임지한돈너비아니(1.98kg, 1만9600원), 등등심돈가스(2.16kg, 2만3400원), 모짜렐라돈가스(2.16kg, 2만8000원)를 2세트 사면 1세트를 덤으로 추가 증정한다. 또 산타리타 비어트 카버네소비뇽 와인을 1병 주문하며 결제하면 산타리타 비어트 별도 1병을 선물로 준다. /정혜인기자

이케아코리아 "당장은 가격조정 계획 없다"

"일본해 표기 거듭 사과"… 광명 매장 첫 공개

이케아 코리아가 19일 경기 광명점(사진)을 언론에 첫 공개했다.

이날 회사 측은 일본해 표기, 가격 정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업체가 매장 오픈 전 언론에 매장을 소개하고 가격 정책을 설명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

안드레 슈미트갈 이케아코리아 리테일 매니저는 "현재 본사와 장식용 벽걸이 세계지도의 일본해 표기 논란과 관련해 긴밀하게 논의 중이다. 본사에서도 중요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한국 소비자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제품을 리콜할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가격 정책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최근 이케아코리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8000개 제품의 국내 가격을 공개했으며 일부 제품이 미국·중국·일본 등 해외 국가 보다 판매가격이 높아 논란이 일었다.

회사 측은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격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앤드류 존슨 세일즈 매니저는 "제품 가격은 생산지·유통경로·통화·관세·세금·수량 등에 따라 책정된다"며 "이케아는 모든국가에 동일한 상품을 만들며 국가별로 가격을 책정하는데 국내 가격은 한국 시장에 맞춤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TV캐비넷 같은 경우 한국 가정 방문 결과 '국민의 가구'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있는 상품인데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염두에 두고 책정했다"며 "인기 제품 중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생산해 제품 가격을 낮췄다"고 말했다.

또 그는 "홈퍼니싱 전 분야에 대해 계속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공급할 것이고 이후 수량의 변화가 생기면 가격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 가격 재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수정기자

'겨울왕국' 인기 여전

VOD는 물론 식음료·화장품과 협업 활발

올 1월 국내에 개봉돼 화제를 모았던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열풍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영화로 시작된 겨울왕국 캐릭터는 VOD·장난감·패션·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와 콜래버레이션을 진행하면서 놀라운 흥행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영화 개봉 이후 출시된 겨울왕국 VOD와 영구 소장 VOD 통합 누적 매출은 개봉 역대 국내외 영화 흥행 1위를 기록 중이다.

스토리북, 영어 교재 등 관련 도서 역시 2013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총 200만 부 이상 팔렸다. 그 종류도 수십 가지에 달한다.

에스케이아상시의 유아식기 브랜드 릴팡은 겨울왕국 캐릭터를 활용해 식기세트, 욕실용품, 놀이매트 등을 다양하게 선보였다. 최근 출시된 겨울왕국 다용도상은 식사뿐 아니라 공부, 놀이에까지 활용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회사 측은 "겨울왕국의 인기로 마트에 전용 코너가 새롭게 생겨났을 정도"라며 "매출 역시 전년 대비 3배 이상 신장했다"고 설명했다.

겨울왕국의 인기는 식음료, 뷰티 업계까지 번졌다.

빙그레는 아이스크림 요맘때에 겨울왕국 캐릭터 엘사, 안나, 올라프를 적용, 바(bar) 타입부터 컵, 콘 타입까지 총 23종의 프로즌 요거트 라인업을 구축했다. 빙그레에 따르면 지난 5월 요맘때 매출은 전년 같은 같은 기간 보다 3배 이상 올랐다.

배스킨라빈스는 '올라프 케이크'에 이어 이달 초 '겨울왕국 엘사'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새롭게 선보였다.

화장품 브랜드 캐리레라는 지난 5월 선보인 겨울왕국 컬렉션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11월 두 번째 '홀리데이 에디션'을 내놨다.

특히 아이섀도, 립제품 등으로 구성된 시즌1 제품은 첫 물량이 다 팔려 현재 4차 리오더가 들어간 상태다. 일본·홍콩·대만 등 해외 수출을 앞두고 있다.

회사 측은 4개월여 동안 20만 개가 넘는 판매고를 기록하면서 단연 눈에 띄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겨울왕국의 인기는 누구나 공감할 만한 '스토리텔링'에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디즈니 관계자는 "사랑과 두려움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면서도 지혜롭게 동해 상황을 극복하는 모습이 대중들의 공감을 샀다"면서 "앞으로도 스토리와 캐릭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끊임없이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직장인 힐링 프로젝트 어디?

도심 속 스트레스 해소 공간 찾으면 많아

연말이 다가오면서 더욱 바빠진 직장인들을 위한 힐링 공간이 인기다.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숨을 돌리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곳을 소개한다.

먼저 서울 압구정동에 위치한 '화이트 시크릿'은 소금을 이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 카페다. 벽과 바닥, 천장 등 주위가 모두 천일염으로 꾸며졌다. 또 죽염 부시기를 통해 음이온을 가진 미세한 소금입자가 분출돼 몸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소금토핑을 뿌린 디저트와 천일염을 올린 커피 등도 맛볼 수 있다.

종로구 계동에는 예니 유명세를 타고 있는 카페 '낮잠'이 있다. 이름 그대로 낮잠을 잘 수 있는 곳으로 피아노 연주곡이나 자연의 새소리 등을 들으며 해먹에서 부족한 수면을 보충할 수 있다. 조명 역시 휴식을 위해 적절하게 조성돼 있으며 직장인 낮잠 쿠폰도 판매 중이다.

연남동에 위치한 박물관식 심리카페 '다르다'에서는 전문 상담을 통한 심리치료가 가능하며 이수역 인근 '떼어 스튜디오'에서는 맞춤형 향기 테라피를 체험할 수 있다.

인사동에 위치한 박물관은 살아있다의 '쉼표의 방'에서는 해먹에 누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사방이 검은 벽면으로 이뤄진 쉼표의 방은 고요함 속에서 유영하는 듯한 빛 반딧불이, 나비를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윤정원기자

이딸라, 국내 라이프스타일 상륙

내년 매장 10개 이상 오픈… 합리적인 가격대 책정

"내년까지 백화점·프리미엄 아울렛·플래그십 스토어를 개념해 10개 이상의 단독 브랜드 매장을 오픈할 계획입니다."

스칸디나비안 프리미엄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이딸라'가 국내 라이프스타일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이딸라의 모기업인 피스카스 한국지사 한국로얄코펜하겐의 오동은(사진) 대표는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일본·대만에 이어 한국에 본격 진출하며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밝혔다.

1881년 핀란드 이딸라 지역의 유리공장에서 시작한 이딸라는 ▲오랜 전통과 역사 ▲시대와 유행을 초월한 디자인 ▲제품 간의 어울림 ▲장인정신 ▲실용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예술품·인테리어 소품·테이블웨어·패브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리즈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피스카스 그룹의 파이비 칼돌라 채글 부사장은 "이딸라는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을 중심으로 단순하면서도 기능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북유럽 디자인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북유럽을 대표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딸라는 국내에 이미 알려진 떼에비 띠이카 등의 식기는 물론 디자이너 알바 알토, 오이바 토이카 등이 만든 예술품과 인테리어 컬렉션의 비중을 높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써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아시아 전역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글로벌 프라이스'를 적용, 보다 합리적인 가격대로 소비자 저변 확대에 힘쓸 예정이다.

오동은 대표는 "이딸라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제품의 가치와 퀄리티"라며 "해외 직구보다는 비싼 가격대이지만 제품의 질과 서비스 대비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수능 대박 기원하고 스트레스도 날리고!

인천공항철도 '수험생에 좋은 여행명소 3선' 추천

인천국제공항 내 소원 나무·소원지, 용궁사 소원바위, 선녀바위 해변 (왼쪽부터)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그동안 못한 다양한 활동을 하려는 수험생들이 많지만 아직 성적이 나오지 않아 불안함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에 코레일공항철도가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인천공항철도를 이용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관광명소를 추천했다.

먼저 인천공항을 방문하면 '한국 문화의 거리'를 만날 수 있다. 여객터미널 4층에 위치한 한국 문화의 거리는 기와집과 정자 등 우리의 전통미가 물씬 풍기는 공간으로 항공기와 계류장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더욱이 인미담 입구에는 소원지를 주렁주렁 매단 '소원나무'가 있으며 '동전연못'에서는 꿈과 희망을 동전에 담아 던질 수도 있다. 또 인터렉티브 디지털 체험관과 조선시대 왕과 왕비 행궁 재현 행사 등 볼거리도 가득하다.

운서역 인근 백운산 자락에는 신라 문무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용궁사의 '소원바위'가 있다. 사찰 뒤편 백운산 등산로 옆에 작은 부처상과 함께 놓인 널찍한 바위인 소원바위에 생년월일과 소원을 말한 후 정성을 다해 작은 돌 하나를 바위 위로 올리면 소원이 이뤄진다고 한다. 게다가 용궁사에는 1300년이 넘는 느티나무가 자태를 뽐내고 있으며 백운산 정상에 오르면 탁 트인 바다전망을 즐길 수 있다.

주말에는 인천공항철도 서해바다열차를 타고 을왕리 해변 중 하나인 선녀바위 해변에 갈 수 있다. 이 곳에는 해변 이름의 유래가 된 선녀바위가 있는데 기도하는 여인의 형상을 닮은 이 바위에 소원을 빌 수 있다. 연말연시나 입시 취업시즌에 특히 연락기 많은 명소이며 주변 가람들도 독특한 매력을 자아내고 있다.

/황재용기자

뜨거운 동지애, 함께 나눌래요?

"세련된 이미지 벗고 일상적인 캐릭터 도전
노 메이크업에 파마까지 과감한 외모 변신
여성감독·배우 끈끈한 작업 '반갑고 소중해'"

영화 '카트'서 깊은 울림 염정아

염정아(42)가 영화 '카트'에 출연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반가움과 의아함이 교차했다. '간첩' 이후 2년 만의 영화라는 점은 반가웠지만 그가 대형마트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연기한다는 사실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도도하고 세련된 이미지의 그가 생활의 때가 묻어 있는 노동자를 잘 소화할 수 있을지 걱정이 있었다. 염정아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우려를 할 것이라는 걸 제가 우려했죠(웃음). 영화와 제가 잘 안 어울려서 작품을 망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 고민도 많았고요."

염정아가 '카트'를 선택한 것은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시나리오에 대한 흥미 때문이었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건축학개론' 등을 만든 제작사 명필름의 작품이라는 점, 그리고 '오래된 정원'으로 만났던 김우형 촬영감독과의 작업이라는 점은 영화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다른 작품들처럼 마음 끌리는 대로 작품을 선택했지만 막상 출연을 확정한 뒤에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카트'에서 염정아가 맡은 선희는 대형마트의 계산원으로 일하며 고등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일상적인 인물을 보여주기 위해 염정아는 외모는 물론 감정적인 면에서도 많은 노력을 쏟았다.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이미지 때문에 선희를 망치면 영화는 실패한다고 봤어요. 영화 속에서만큼은 염정아가 아닌 선희여야 했어요. 그래서 화장도 남자 배우들이 하는 정도로만 하고 머리도 짧은 머리에 아줌마 파마를 했죠. 큰 키도 늘씬한 느낌보다는 장대 같은 느낌으로 보이기를 바랐고요. 외적인 변화와 함께 선희의 심리 변화와 내면의 성장 과정을 최대한 자연스럽고 불편하지 않게 그리기 위해 매 장면 고민했어요."

영화는 부당해고를 당한 마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그린다. 회사가 시키는 대로 일만 하던 선희가 일련의 투쟁 과정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주체적인 노동자로 변화하는 과정이 영화의 중요한 드라마다. 선희를 만나면서 염정아는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감정이 폭발하는 장면에서는 작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평소와 다르게 여러 번 촬영을 반복할 정도로 연기에 집중했다.

염정아는 시나리오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장면들이 완성된 영화에서도 오랜 여운을 남겼다고 했다. 그 중 하나는 정규직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다가 하루 만에 해고 통보를 받은 선희가 아이들과 저녁을 먹다 조용히 눈물 흘리는 장면이다. "그냥 저 자신을 선희라고 생각했어요. 아침까지는 아이들에게 정규직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으니 얼마나 막막할까 싶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밥은 꾸역꾸역 먹잖아요. 초라함과 서러움에 깊게 울었어요. 아이들에게 우는 소리가 들릴까봐 숨 죽여서 울었는데 그 모습은 김우형 촬영감독님이 잘 담아주셨어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아들 태영(도경수)이 편의점 주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장면도 빼놓을 수 없다. 사람들 앞에서 모기만한 목소리로 말하던 선희가 처음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영화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염정아는 "어떻게 표현할지 많이 생각했지만 결국 처음 자기 목소리를 내는 '떨림'을 선택했다"며 "작은 통쾌함을 줄 수 있는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보통 사람들처럼 노동자의 이야기를 뉴스로만 접했던 염정아는 '카트'를 통해 노동자들이 사실은 우리 옆에 가까이 있는 이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 이해를 통해 선희와 점점 가까워졌다. 영화 후반부, 의자를 잡고 "사람 대접해달라"고 외치는 선희의 목소리는 캐릭터에 가장 녹아든 순간의 외침이었다.

"물대포를 맞으며 시위하는 장면은 촬영 전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막상 촬영하니까 '투사'가 됐죠(웃음). 그 순간에는 어디에 부딪히는지도 다치는지도, 아픈지도 추운지도 모르고 촬영했어요. 그때는 우리 '동지들' 모두가 그랬기에 전쟁터나 다름없었어요."

여성 감독, 그리고 여배우들과 끈끈하게 작업한 '카트'는 염정아의 필모그래피에서 "반갑고 소중한 경험"으로 남았다. 차기작은 정하지 않았지만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하고 싶은 작품을 기다릴 생각이다. 다만 지금은 소중한 경험으로 남은 이 영화를 많은 관객들이 공감하길 바란다. 화려함을 벗고 뜨거운 동지애로 돌아온 염정아를 만날 때다.

/장병호 기자

사진/라운드테이블(한준희) 디자인/김아람

Handel
Messiah
Beethoven
Symphony No.9
Choral

무료신문 메트로 송년음악회

헨델 메시아 & 베토벤 합창교향곡

2014. 11. 27(목) 8PM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metro
주관
후원 동국제약 목동병원 SPC KDB대우증권 하나은행

티켓 P 20만원 VIP 15만원 R 10만원 S 7만원 A 4만원 예매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공연문의 02-6292-9370

타이거JK '피노키오' OST 참여

힙합 가수 타이거JK(사진)가 SBS 수목드라마 '피노키오' OST를 부른다.

1999년 드렁큰 타이거 1집 '이어 오브 더 타이거'로 데뷔한 뒤 처음으로 드라마 OST 앨범에 참여하는 것이다.

타이거JK는 드렁큰 타이거를 한국 대표 힙합 그룹으로 키워냈고 각종 시상식에서 수상하면서 대한민국 힙합계의 전설로 평가받는다.

타이거JK의 OST 참여는 그의 음악적 활동 범위를 넓히는 계기라는 분석이다.

'피노키오'는 지난주 첫 방송된 이후 피노키오 증후군을 비롯해 주요 출연 배우들이 국내 포털사이트 인기 검색어에 이름을 올리며 화제가 되고 있다. 타이거JK의 음악이 진정한 기자로 성장할 네 청춘(이종석·박신혜·김영광·이유비)의 이야기에 어떤 활력을 불어 넣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피노키오' OST 제작사 측은 "타이거JK의 음악적 센스가 극의 흥미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래퍼 타이거JK가 참여한 '피노키오' OST는 20일 정오 국내 모든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전효진기자

솔로 데뷔 니콜의 '출사표'

타이틀곡 '마마' 몽환적 섹시… "음원 순위보다 가능성 봐줬으면"

"이미지 변신이 목표다."

그룹 카라의 전 멤버 니콜이 솔로 여가수로 출사표를 던졌다.

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열린 컴백 쇼케이스에서 니콜은 "경쟁보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카라에서는 보여주지 못했던 게 많았다. 대중이 니콜이 솔로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해주고 '앞으로가 기대되는 친구'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며 "음원 순위에 상관없이 이미지를 변화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각오를 전했다.

이날 쇼케이스는 첫 솔로 미니앨범 '퍼스트 로맨스'의 타이틀곡 '마마' 무대로 시작됐다.

뮤직비디오와 같은 의상을 입고 등장한 니콜은 몽환적인 섹시함을 자아내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안무는 미국의 유명 안무가 루암 케플러지와 저넬 긱클리암스가 참여했다.

니콜은 "의자를 사용하는 안무가 포인트"라며 "동선 이동이 많다. 안무 선생님은 뮤지컬 콘셉트로 무대를 구성하고 싶어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안무팀은 나와 함께 남자들을 유혹하고 남성 안무가들은 그녀의 매력에 헤어나올 수 없어 라는 느낌을 내려고 했다"며 "간주에 들리는 피아노 소리에서 남성들을 손짓으로 불러오는 듯한 모습이 신선했다"고 덧붙였다.

카라로 활동했을 때보다 보컬에 대한 부담이 늘었을 것이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뉴욕에 갔을 때 춤뿐만 아니라 노래도 수업 받았다"며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발성부터 다시 연습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열린 가수 니콜의 첫 솔로 미니앨범 '퍼스트 로맨스(First Romance)' 쇼케이스에서 니콜이 멋진 무대를 보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타이틀곡 '마마'는 제목 그대로 엄마를 의미한다. 한 소녀가 엄마 몰래 사랑을 하면서 여자가 된다는 내용이다.

니콜은 "10대나 20대가 공감할 만한 가사"라며 "무대 의상도 그 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패션 아이템을 착용해서 전체적으로 발랄한 느낌을 주고 싶다"고 무대 연출 포인트를 설명했다.

한편 니콜의 첫 솔로 미니앨범에는 타이틀곡 '마마'를 비롯해 '이노센트', '7 2-오레', '조커', '러브', '마마'의 연주곡 버전 등 총 6곡이 수록됐다. 인피니트 동우, 스피카 김보아, 리키가 피처링에 참여해 곡의 완성도를 높였다.

/전효진기자 jeonhj@metroseoul.co.kr

2년 만에 돌아온 서울전자음악단

20일 디지털 싱글 '꿈이라면 좋을까' 발표

밴드 서울전자음악단(위 사진)이 2년 만에 활동을 재개한다.

19일 소속사 휴먼엔터테인먼트는 서울전자음악단이 20일 오후 12시에 재결성 이후 첫 디지털 싱글인 '꿈이라면 좋을까'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신중현의 둘째 아들이자 기타리스트 신대철의 동생인 신윤철을 중심으로 2003년에 결성된 서울전자음악단은 사이키델릭한 음악으로 평단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2012년 2월 돌연 밴드 해산을 선언해 아쉬움을 남겼다.

2년 만에 돌아온 서울전자음악단은 신윤철을 포함해 베이시스트 이봉준, 드러머 손경호가 함께한다. 손경호는 신윤철과 함께 1999년 원더버드로 활동했던 죽마고우

나, 이봉준은 신중현이 이끄는 신중현밴드의 베이시스트로 다년간 활동한 실력 있는 뮤지션이다.

소속사 측은 "서울전자음악단이 새로운 소속사인 휴먼엔터테인먼트에 새로운 둥지를 틀고 앨범 작업과 공연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

'재결합' 버즈 앨범 공개

정규 4집 26일 발매… 연말 콘서트 개최

밴드 버즈(사진)가 26일 0시 정규 4집을 발매한다. 8년 만의 재결합 이후 첫 행보다.

버즈는 올 4월 원년 멤버 다섯 명이 재결합을 선언한 뒤 8년만의 이유, 트레인 등 두 차례 싱글을 발표했다.

지난 17일 버즈의 베이시스트 신준기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손 글씨로 적은 정규 4집 앨범의 트랙리스트를 공개했다.

트랙리스트에는 선공개 됐던 '8년 만의 이유'와 '트레인' 이 포함된 11개의 신곡이 담겨 있다. 이번 앨범에는 밴드의 정체성이 극대화된 곡들이 수록됐다. 버즈 음악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버즈는 다음달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광진구 악스코리아에서 콘서트를 열 계획이다.

/전효진기자

"불륜이 아닌 삶을 이야기하는 멜로"

'일리 있는 사랑' 섬세한 감정 전달

로맨스가 필요해'로 로맨스 드라마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tvN이 또 하나의 멜로 대작을 준비한다.

'내 이름은 김삼순'의 김도우 작가와 '연애시대'의 한지승 감독이 만난 드라마 '일리 있는 사랑'이 다음달 1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한지승 감독을 포함한 제작진 측은 출연 배우 엄태웅, 이시영, 이수혁, 최여진 등과 함께 19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제작발표회를 가졌다.

'일리 있는 사랑'은 주인공 김일리(이시영)가 남편 장희태(엄태웅)와 뒤늦게 찾아온 사랑 김준(이수혁) 사이에서 갈등하며 발현되는 인간 감정을 다룬다. 뜨거웠던 첫사랑과 운명적이고 안정적인 사랑 사이에서 파도를 타듯 흔들리는 세 사람의 감정을 섬세하게 그릴 예정이다.

한지승 감독은 '연애시대' 이후 8년 만에 브라운관을 찾았다. 디테일과 섬세한 연출로 정평이 나 있는 감독이다. 이시영은 "한 감독님은 촬영할 때 한 번도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항상 카메라 옆에 서서 하나하나 신경 쓴다"며 "소품도 직접 다 챙긴다. 소품의 각도, 카메라 앵글 등을 신경 쓰면서 한 신을 스무 번도 넘게 촬영한 적이 있다. 햇빛 위치, 그리고 보조 출연자 동선과 각도에 따라 시간을 두고 촬영을 할 정도로 디테일하다. 좀 더 일찍 촬영을 시작할걸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불륜이라고 할 수 있는 부적절한 관계가 이 드라마의 큰 틀을 만든다. 김도우 작가는 "섹디른 멜로드라마를 하고 싶었다. 불륜은 아니다. 부적절한 관계를 하나의 장치로 가져와 로맨스 장르로 풀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 감수성이 묻어있는 드라마"라고 설명했다.

한지승 감독은 "등장인물 모두 각자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사랑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결국 사랑은 사랑을 통해 그들의 일상과 삶이 밝혀지게 된다"며 "우리 드라마는 '사랑을 앞세운 삶의 이야기'라고 정의하고 싶다. 이들의 사랑을 통해 자극과 말초적인 이념으로 꽉 찬 지금의 현실을 한 번쯤은 환기시켰으면 한다"고 소개했다.

최여진, 이수혁, 이시영, 엄태웅, 김도우 작가, 한지승 감독(왼쪽부터) CJ E&M 제공

"멘디지 로맨틱 드라마"라는 한지승 감독의 말처럼 '일리 있는 사랑'은 단순한 연애의 나열이나 가벼운 에피소드 단골 주 제로는 삼지 않는다. 감정선이 깊고 호흡이 느린 작품이기 때문에 배우 사이의 감정 조합과 균형에 따라 완성을 찾아가는 드라마다. 단순히 '좋다 나쁘다'는 판단에 앞서 깊이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한다.

그런 점에서 엄태웅은 최고의 캐스팅이었다. 한지승 감독은 "엄태웅은 평범함에서 나오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큰 장점이다.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불어 닥친 파도에 큰 혼란을 겪게 된다. 처음부터 엄태웅이 떠올랐고 그만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엄태웅은 "희태를 연기하면서 희태가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있었다. 대본을 보니 이해가 됐다"며 "연기의 포인트를 찾는 것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희태와는 나이도 성격도 비슷하다. 다만 앞으로 진행되는 촬영에는 어려운 장면들이 많다. 감정적으로 섬세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리 있는 사랑'은 다음달 1일 tvN을 통해 첫 방송된다.

/김학철 기자 kimc0104@metroseoul.co.kr

오드리 헵번의 오스카상 한국에…

29일 개막 전시회서 국내 첫 공개

오드리 헵번(사진 왼쪽)이 1954년 영화 '로마의 휴일'로 수상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트로피가 한국을 찾는다.

오드리 헵번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한 트로피는 오는 29일 개막하는 '오드리 헵번 뷰티 비욘드 뷰티' 전시회 품목 중 하나로 전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오스카 트로피가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카데미 수상자들에게 수여되는 오스카 트로피는 인간형상으로 손에 칼을 쥐고 필름 릴 위에 올라 있는 기사의 형상을 띠고 있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상금은 주어지지 않지만 대신 영예로운 오스카 트로피를 받는 것만으로도 영화인들은 영광으로 여기고 있다.

'오드리 헵번, 뷰티 비욘드 뷰티' 전시회는 '아름다움 그 이상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여성, 어머니, 인간으로서 오드리 헵번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다. 휴머니즘이 가득한 오드리 헵번의 삶을 통해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오드리 헵번 전시회는 오는 29일부터 내년 3월8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다.

/정병춘 기자 sniper@

이천희, 디자이너 서바이벌 MC

'슈퍼컴퍼니'… 29일 온스타일서 첫 방송

배우 이천희(사진)가 온스타일의 디자이너 서바이벌 프로그램 '슈퍼컴퍼니' MC로 발탁됐다.

최근 종영한 SBS 예능 프로그램 '도시의 법칙 in 뉴욕'에서 '뉴욕대디' '천가이버' 등의 수식어를 만들어내며 새로운 모습으로 인생을 찾았던 이천희는 차세대 디자이너를 선발하는 '슈퍼컴퍼니'에서 활약을 예고한다.

가구 브랜드인 '하이브로우'를 직접 운영하고 있기도 한 이천희는 이번 프로그램 MC를 위해 시작 전부터 다양한 디자인을 공부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소속사 측은 전했다. 이천희는 19일 첫 촬영에 나선다.

'슈퍼컴퍼니'는 한국 디자인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한국디자인진흥원과 CJ E&M이 공동 설립한 프로젝트다. 디자인이 가미된 전 영역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두 팀이 경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회 연 중 1회 편성으로 8주간에 걸쳐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실제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업계의 인물을 팀장으로 영입할 예정이다. 우승자에게는 총 2억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방송은 오는 29일 오후 11시 온스타일을 통해 첫 전파를 탄다.

/김학철 기자

'제인 구달' 보고 환경보호까지

극장 수익 일부 '생명다양성재단' 기부

다큐멘터리 영화 '제인 구달'이 극장 수익 중 일부를 '생명다양성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수입배급사 오드가 밝혔다.

영화는 개봉일에 맞춰 영화의 주인공인 제인 구달(사진)이 2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생명다양성재단'의 요청으로 한국을 찾는 제인 구달은 오는 24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대표 임순례 감독과 함께 시네마톡 행사에 참여해 관객과 만난다.

이날 진행되는 시네마톡 행사의 극장 수익 중 일부는 '생명다양성재단'에 기부된다. 이는 야생동물 연구와 교육, 보호를 위해 '제인 구달 연구소'를 설립하고 국제 청소년 환경 단체 '뿌리와 새싹'을 운영하며 지구 환경보호를 알리고 있는 제인 구달의 활동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결정됐다.

'제인 구달'은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낸 저명한 동물학자이자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세계적인 환경 운동가 제인 구달의 열정과 용기, 그리고 그녀를 지지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오는 27일 개봉 예정이다.

/정병춘 기자

슈틸리케 감독이 선택할 베스트 11은?

중동 원정 1승 1패 — 골 결정력 아쉬움·중원 싸움선 좋은 평가

아시안컵을 앞두고 최종 모의고사를 치른 슈틸리케호가 중동 원정에서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 다만 11명의 태극전사는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다.

울리 슈틸리케(사진)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엿새간의 중동 원정을 마치고 20일(한국시간) 귀국한다. 요르단(1-0 승) 이란(0-1 패)과의 2연전은 내년 1월 개막하는 호주 아시안컵을 앞두고 치러진 마지막 경기였다.

아직 완성된 팀이 아니기에 11명의 주전 선수가 누가 될지 속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대강의 윤곽은 잡힌다. 슈틸리케 감독은 이란전을 앞두고 "이란전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는 아시안컵 대표로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적이 있다.

먼저 치러진 요르단전에서 슈틸리케 감독은 4-1-4-1 전술을 시험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대표팀의 핵심 자원인 기성용(스완지시티)을 뺀 채 치른 경기에서 이날의 전술 변화와 승리는 값졌다. 한국영(카타르SC)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섰고 남태희(레퀴야)가 수비에 가담하는 모습도 보였다. 결국 한교원(전북 현대)이 결승골을 터뜨렸다. 양쪽 측면 공격수의 중앙 침투를 중요시하는 슈틸리케 감독의 주문에 따른 골이었다.

이란전에서는 대표팀의 '플랜A'인 4-2-3-1 전술이 가동됐다. 수비는 합격점을 받은 편이었다. 경기 막판 오심으로 결승골을 내주지 않았다면 무실점이었다. 슈틸리케호는 두 옵션을 인정하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최적의 수비 조합은 찾지 못했다. 골 결정력 문제도 그대로 남았다.

2014 브라질 월드컵 이후 요르단전에서 처음 가동된 홍정호(아우크스부르크)-김영권(광저우 헝다) 중앙 수비 조합은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란전에서 중앙 수비를 맡은 곽태휘(알힐랄)-장현수(광저우 부리)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처음 발을 맞춘 상황이다. 결국 슈틸리케 감독은 곽태휘·장현수·홍정호를 두고 최적의 조합을 찾을 것이 예상된다.

기성용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설 것이 확실해 보이며 그와 중원을 누빌 짝은 한국영이 유력하다. 손흥민(레버쿠젠)은 왼쪽 공격수 자리로, 오른쪽 자리는 이청용(볼턴)이나 한교원이 번갈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동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남태희가 구자철(마인츠)을 대신해 주전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며 남태희의 위치에 따라 박주호의 자리가 결정될 전망이다.

가장 변수가 많은 포지션은 단연 최전방 공격수다. 슈틸리케 감독은 이란전 후 골 결정력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근호(엘자이시)를 전방에 세우는 '제로톱'과 타깃형 공격수의 원톱 등 두 가지 옵션을 두고 고심해야 한다.

슈틸리케 감독은 다음 달 9일까지 아시아축구연맹(AFC)에 50명의 예비명단을 제출하고 30일까지 23명의 최종명단을 확정해야 한다. 주전으로 나설 베스트 멤버는 내년 1월10일 치러질 오만과의 조별 예선 1차전에서 볼 수 있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주장 완장 달고 훨훨 나는 루니

A매치 46골 — 잉글랜드 역대 최다골 눈앞

잉글랜드 축구대표팀의 웨인 루니(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잉글랜드 역대 최다골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19일(한국시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셀틱파크에서 열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와의 친선전에서 잉글랜드는 루니가 터뜨린 2골에 힘입어 3-1로 승리했다.

이날 경기에서 루니는 후반 2분과 40분에 터뜨린 2골로 개인 통산 A매치 101경기에서 46골을 작성했다. 이는 1970년 보비 찰턴이 작성한 역대 A매치 최다골(49골) 기록과 3골 차이다.

이로써 잉글랜드는 브라질 월드컵 이후 치러진 6차례 A매치(유로 2016 예선 4경기 포함)에서 전승을 거두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루니는 브라질 월드컵 이후 대표팀 은퇴를 선언한 스티븐 제라드(리버풀)의 뒤를 이어 주장이 된 뒤 6경기를 치르는 동안 5경기에서 6골을 뽑아내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루니는 주장을 맡은 뒤 뛰어난 리더십으로 선수들을 결집시키며 로이 호지슨 대표팀 감독의 어깨를 한결 가볍게 해주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대표팀 소집 이후 선수들만 따로 소집해 경기력을 놓고 토론회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루니는 "대표팀은 자주 모여 훈련을 할 수 없는 만큼 선수들 모두 하나의 팀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선수들끼리 모이면 코칭스태프 앞에서 할 수 없었던 이야기도 할 수 있다"며 동료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

19일(한국시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셀틱파크에서 열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와의 친선전에서 잉글랜드의 웨인 루니가 후반 40분 자신의 두 번째 골을 성공시킨 뒤 동료들의 축하 속에 환호하고 있다. /AP·뉴시스

프로야구 FA 19명 사상 최대

박진만·이원석은 자격 획득했지만 미신청

프로야구 역사상 최대 규모인 총 19명의 선수가 자유계약 신분으로 FA 시장에 나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9일 2015년 자유계약선수(FA)를 신청한 19명의 선수를 승인하고 이를 공시했다. FA 자격 선수는 애초 총 21명이었으나 SK 와이번스의 박진만(38·사진 왼쪽)과 두산 베어스의 이원석(28·오른쪽)은 신청을 하지 않았다.

박진만은 올 시즌 19경기에 출전해 32타수 8안타 타율 2할5푼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또 39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은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 올해 두산에서 유일하게 FA 자격을 획득한 선수지만 입대가 코앞이라 자격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이번 FA 시장에는 팀 전력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할 대형 선수가 많다. 가장 주목되는 선수는 SK의 내야수 최정(27)이다. 최정은 강민호(롯데)의 역대 최고 금액(4년 75억원) 경신은 물론 최초의 100억원 계약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

삼성 라이온즈 우완 에이스 윤성환(33)과 불펜의 핵 안지만(31)은 각각 FA 투수 최고액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선발 최고액은 삼성의 장원삼이 4년에 60억원을 받고 계약했고 불펜 투수 최고액은 롯데 자이언츠의 정대현이 4년 36억원짜리 계약서에 사인했다.

이와 함께 롯데의 좌완 선발 장원준(29)도 이번 FA 시장에서 주목받는 투수다. 공수를 겸비한 외야수 김강민(SK), 한때 국내 최고 우완 투수라는 평가를 받은 송은범(KIA 타이거즈)도 FA 시장은 달굴 주인공으로 꼽힌다.

원 소속구단 기준으로 FA 신청 선수는 삼성의 윤성환·권혁·안지만·조동찬·배영수, SK의 이재영·김강민·나주환·조동화·최정, 롯데의 김사율·장원준·박기혁, LG의 박경수·박용택, KIA의 차일목·송은범, 넥센의 이성열, 한화의 김경언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번에 19명의 선수가 시장에 나와 한 구단은 최대 3명의 FA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 야구 규약은 FA 신청자가 1~9명일 경우 구단별로 외부 FA 영입 1명, 10~18명이면 2명, 19~27명이면 3명, 28명이 이상이면 4명을 영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김학철기자

프로배구 전적 (19일)

OK저축은행	2	3	현대건설
현대캐피탈	0	3	한국전력

프로농구 전적 (19일)

인삼공사	27	17	20	21	85
삼성	15	22	20	17	74
LG	12	10	29	16	67
동부	18	24	21	11	74

LPGA 2015 일정 발표

33개 대회·상금 6160만 달러

2015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는 내년 1월 코츠 챔피언십으로 개막한다.

19일(한국시간) LPGA 투어 사무국은 올해 마지막 대회인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이 열리는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에서 2015시즌 일정을 발표했다.

2015시즌 개막전은 내년 1월28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나흘 동안 열리는 신설 대회 코츠 챔피언십이다. 마지막 대회는 내년 11월22일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에서 열리는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으로 막을 내린다.

올해보다 1개 대회가 늘어나 총 33개 대회가 열린다. 총상금도 올해 5755만 달러에서 6160만 달러(약 677억원)로 증가했다.

메이저 대회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5개 대회가 열린다. 국내에서 열리는 하나 외환 챔피언십은 10월15일 개막할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LINEAGE ETERNAL
TWILIGHT RESISTANCE
NCSOFT